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22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33 1982년 9월 2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September 21, 1982

스포츠로 우애다져

토론토·디트로이트 첫 축구대회

매년 2회 열릴듯, 토론토 승리

스포츠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교민들이 우의를 다졌다.

토론토의 교민 축구인들과 243마일 남쪽, 국경 넘어의 디트로이트 교민축구팀은 17일 하오 디트로이트 구장서 3개의 축구경기를 가졌다.

스코어는 2대1로 토론토의 승리.

토론토축구팀은 몬트리얼팀과 매년 1번씩 양도시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으나, 국경넘어 이웃 미국 교민과 국제(?)경기를 가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부 뱅쿠버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년 남쪽 시애틀 교민과 정기 야유회와 각종 운동대회를 가져왔다. 시애틀은 뱅쿠버에서 버스로 약3시간 거리이다.

토론토 가까이 있는 미국도시로는 버팔로(약2시간 거리)가 있 으나, 교민이 적어 토론토와의 교환 경기는 없었다.

교민 1만명의 디트로이트는 토론토-오타와 거리보다 약간 가까운 자동차 공장이 몰려있는 도시이다.

이번 30명의 캐나다축구팀을 조직, 인솔한 고광남 온타리오한인축구협회장은 20일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안됐다. 미국 교민들과 첫 친선 축구경기를 가진 것에 의의가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매년 봄·가을 두차례씩 서로 장소를 바꿔가며 경기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세 안팎의 청소년팀은 디트로이트의 화랑팀과 전후반 각40분 경기에서 피로를 무릅쓰고 분투, 1:1로 비겼고, 20세 후반자로 구성된 토론토팀을 그곳 맹호팀과 대전, 4:1로 가볍게 이겼다. 두차례 경기만으로 모처럼의 기회를 끝내기 아쉬워서 양국 교민들은 다시 나이에 무관한 혼성팀을 구성, 다시 한판 겨룬 결과 토론토가 2:1로 또 이겨 토론토 3전2승을 거두었다.

축구협회가 선정한 토론토팀은 이날 새벽6시30분 전세버스로 출발했다.

디트로이트에는 화랑, 맹호, 이글등 3개 상설 축구팀이 있다. 이중 화랑팀(단장 강영구)은 미국축구리그에 가입한 팀으로 지난12일 끝난 주미 한국대사배 쟁탈 전미국 교민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날 경기장에는 디트로이트 한인회장을 비롯한 많은 교민들이 나왔고, 신정석 미시건주 체육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경기후 양국팀 대표들은 기념패를 교환하면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앞으로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 모두 살해될거예요"

부모·3형제를 모두 잃은 11세 소년 울부짖어

팔레스타인 난민촌 천여명 대학살

(베이루트)7일오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은 무장 기독교 팔랑헤당원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천여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을때, 미라드·파로크라는 11세 소년이 광분한 군중을 뚫고 가자병원에 도착했다.

그 소년은 오른쪽 다리와 왼쪽팔을 총탄에 맞아 구멍이 뚫려있었으며,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바로 직전 그 소년이 보는 앞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3명이 총살을 당했다.

그 소년은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의사에게 「우리는 모두 총에 죽을것」이라고 외쳤다.

이스라엘인들까지 소름끼치는 사브라난민촌과 샤티라난민촌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대학살사건의 전모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며, 이들 난민촌공격에 이스라엘측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생존자, 의사, 국제구호단원, 외교관및 군장교와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종합해 볼때 서로 엇갈려 아직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터뷰를 통해 최소한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스라엘이 동베이루트와 남부 레바논에서 온 기독교민병들이 무자비한 난동을 벌리도록 발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기독교 공격대를 고용했을지도 모르며, 이스라엘이 이같은 공격을 사전에 계획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33시간이나 계속된 이같은 참극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관리들은 다만 처음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관리는 19일 이스라엘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스라엘군은 기독교 팔랑헤민병들이 난민촌에 숨어 있는 PLO게릴라를 몰아내기 위해 난민촌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고 이들의 출입을 허용했을 뿐이며,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군대를 동원, 진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지휘소에서 200야드이내 지역의 학살시체 집단무덤에는 시체를 흙으로 얇게 덮어 놓아, 팔, 다리와 부푼시체가 흙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이 무덤과 난민촌은 이스라엘군인들이 숨어있던 벌판 지붕꼭대기에서 정면으로 보인다.

지난15일 이스라엘군은 서베이루트를 점령, 이들 난민촌들을 무력위협하면서 모든 탈주로를 봉쇄했고, 이스라엘군의 진격시 간간히 유혈충돌이 벌어져 그날 가자와 에이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자수가 3명이나 되었다.

그런다음, 700여명으로 구성된 기독교민병대가 동원되었는데, 이들중 일부는 레바논침공 첫날 이스라엘에 접수된 팔레스타인요세지 다모어지역에서 온 팔랑헤민병들이고, 나머지 일부는 1978년 베긴정부가 현지에 심어 둔 레바논 육군의 반역자 사드·하다드 소장이 이끄는 무리들이였다.

◆독가스 마스크를 쓴 인부들이 「사브라」팔레스타인난민수용소에서 학살당한 시체를 나르고 있다.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기독교 파랑지스트당원들에 의해 피살됐다. 파랑지스트 방위군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의 화살이 이스라엘로 쏠리고 있다. 충동의 찌는 더위에 시체는 모두 부패, 악취가 진지를 진동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학살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 발뺌에 안간힘

유엔옵저버 증원동의

(예루살렘)지난주말 레바논 기독교인들이 회교도 피난민 캠프에서 대규모 무차별 살상극을 벌인데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스라엘은 20일 서베이루트 상주 유엔옵저버단을 10명에서 50명으로 증원 파견하는데 동의했다.

15일 재개된 공격으로 16일 베이루트 완전 점령에 성공한 이스라엘군은 또 미국측과 베이루트 통치권을 레바논에 이양하는 문제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시간반동안의 비상각의 끝에 나온 이스라엘정부 성명은 팔레스타인 피난민 수용소 대학살극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려는 어떠한 처사도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범죄적 학살규탄

(유엔본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범죄적 대학살」로 규정짓고 옵저버단의 수를 5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정식으로 가결했다.

새 유엔 옵저버단에는 이탈리아, 프랑스및 미국의 군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녀자및 기저귀를 찬 어린이들을 포함한 천여명을 무차별 살상한 서베이루트의 2개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 대학살사건이 있자, 이스라엘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비록 정부가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원할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긴수상판저 주위를 비롯, 전역에서 정부규탄 데모가 일어났으며, 일부 데모대원들은 "국방상 샤론은 살인마"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교황도 비탄

(카스텔·간돌포, 이탈리아)로마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19일 주일 미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학살 뉴스는 「끔찍한 대학살극」으로 「인간정신이 지나친 야만」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학살극은 교황이 사상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게릴라 지도자 야세르·아라파트와 만난지 5일 뒤에 일어났다.

초점

이스라엘, 비난 모면 못해

팔랑헤당 잠입주장 근거희박

이스라엘이 뭐라고 주장하건 간에 두개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 대학살극은 "평화유지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지난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완전 점령한 이스라엘로서는 책임과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의 회교도 구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차기 레바논 대통령 당선자 제마엘암살 이후 야기될 혼란과 유혈극을 막기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었다.

이스라엘국민들이 이번 대학살사건에 대해 가지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제마엘의 죽음 이후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팔랑헤당의 난민수용소 진입을 이스라엘군이 묵인했는가?

그들이 몰래 잠입했다면 이스라엘군의 경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개입은 도대체 언제나 끝장날 것인가?

19일 비로소 난민수용소에서 철거, 레바논군들에 수용소 경비권을 넘긴 뒤 이스라엘 외무성은 이스라엘군의 방위가 없었더라면 레바논에서는 대규모 더 큰 대학살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 베이루트의 군참모장 라파엘·에이탄씨는 레바논군이 좀 더 미리 피난민수용소 경비권을 인계받았더라면 이번 대학살극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이스라엘측 공식성명이 팔랑헤당원들이 수용수안으로 「몰래 잠입」해 갔다고 주장한 반면, 한 군고위 간부는 팔랑헤당원들이 철수한 PLO잔류자들을 소탕하도록 이스라엘군이 허가해 주었으나, 대학살이 시작되자 즉시 학살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투입되었다고 말해 서로 상반된 말을 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내에 강력한 친 이스라엘계대통령이 선출되고, 강력한 군이 레바논을 지켜주어 이스라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이번의 대학살로 두나라의 관계는 더욱 얽혀들고만 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대리점
남화 금상 품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5%		12%
90일	13%		12.5%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개업 5 주년기념
특별세일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ONTO (In Yonge-Eglinton Centre)
☎ : 486-0397 김만구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2오픈탁구선수권대회

한국등 10개국선수 자웅겨루어

캐나다의 Norwich Union 보험회사 주최 82년도 오픈 탁구선수권대회가 9월22~25일 에토비코크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다.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인도, 체코, 영국, 쟈마이카, 파키스탄, 트리니대드·토바고 선수들이 겨루는 이 대회에 한국에서는 고교선수 9명(남 5, 여 4)및 임원 6명이 원정 참가한다.

◆남선수: 홍의표·주정환·최영일·윤기영·최은철

◆여선수: 김 숙·이계선·신현수·김미정

이번대회의 상금은 챔피언 $1천, 2등 $600, 3등 $425등이다.

입장료: $2, 결승 $5, 노인및 12세 미만은 무료.

신경통환자 희소식

필리핀노인 무료치료

근육통, 신경통을 앓는 교포노인들을 무료치료 해주던 필리핀계 노부부가 한인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게됐다.

지난 81년6월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온 필리인계 노부부 길레모·마날로옹(7-)과 부인 아파로·마날로여사(66)는 인종을 초월, 신경통이나 다리 삐거나 허리부은 교민 15명에게 지압, 맛사지, 코코낫기름 바르기등으로 무료치료해 실효를 거두었다.

이들 부부는 필리핀 시절부터 이 일을 실시, 「하느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 인류는 형제다. 형제에게 봉사하는 것이니 댓가는 필요없다.」고 무료를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한인회는 이들에게 감사패를 드릴 계획이다으로 신경통등으로 고민하는 교포들의 다수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마날로씨의 주소는 7433 Yonge St. Tor. #310. 전화 : 881-7295

무스코카단풍관광

토론토 한맘노인회

토론토의 한맘노인회(회장 : 김성는)는 단풍의 계절을 맞아 10월2일(토) 상오9시 한인카톨릭회관 출발, 무스코카및 페리사운드지역의 단풍관광후 이날 하오8시 토론토로 돌아온다. (회비 $13 점심 각자 지참)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문〉 저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무척 쌀쌀한 느낌이 들었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것이 아닙니다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리셉션에서 사람들이 쌀쌀함을 느꼈읍니다.

저는 저의 사교적인 행동이 그리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토렌스에서 민)

●〈답〉 물론 귀하가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저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미국에서 쌀쌀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타인의 몸짓을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읍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서로 달리 행동할수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는 대화할 때 어떤 문화권에서는 서로 바짝 붙어서 말하지만 또 다른 문화적 조건하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경우를 대합니다.

이런경우 우리는 전자를 「밀착형」이라고 할수 있고 후자를 「쌀쌀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나 몸짓에서 오는 피해는 없읍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바싹 붙어서 말할때는 오해하거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별로 달갑지 않은 남자가 달라붙어 이야기를 하려할 때 보통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뒤로 물러나겠지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정하시면 귀하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수 있을것이고 사람들도 점점 더 귀하와 친근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저는 곧 결혼을

받았으며 고맙다는 뜻의 카드를 보냅니다.

이런카드는 카드상점이나 선물가게에서 사서 보내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 틈이 있는 종이에 간단한 내용을 써서 보내도 좋습니다. 보통 한두줄로 「보내준 토스터가 아주 유용합니다」 또는 「보내준 타월의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하는등의 말을 적어 보내면 됩니다.

이런 풍습은 한국풍습과 약간 다르겠지요. 저도 부산 어느 결혼식장에서 결혼답례를 받고 깜짝 놀랬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다른 문화권선 상대태도를 잘못 인식할수도
선물 받으면 잘 받았다는뜻 표하는게 예의

저의 한 한국인 여자친구는 어쩌나 바짝 다가서서 이야기하는지 그녀와 이야기 할때 저는 항상 협소함을 느끼나 그녀는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만약 그녀가 미국에 오래 살았다면 또 달리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요.

보통 이런 개인적 공간이

하게 되는데 한국사람은 물론 미국사람도 많이 초대할 생각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미국식을 많이 따르려고 하는데 저에게 선물을 보내온 사람들에게 일일히 고맙다는 카드를 보내야 하는지요. (노스릿지에서 김)

●〈답〉 미국에서는 선물을 보내온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선물 보내온 사람에게 보내준 선물을 잘

나니까 결혼식에서 저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 부조금 액수를 적는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되더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경우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부조를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선물을 함으로써 두 부부의 행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일병은 자발 탈주했다"
—유엔군사령부 결론

(서울20일=연합)유엔군사령부(UNC)는 지난달 28일 판문점부근에서 경비근무중 실종된 미육군 죠셉·화이트일병은 동기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자진해서 북한으로 탈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UNC는 20일 발표한 화이트일병실종사건에 대한 종합상황개요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화이트일병의 더블백과 개인소지품 및 숙소를 조사해본 결과 「북한생활상에 대한 다량의 북한선전물과 신문기사」를 발견해 냈다고 밝혔다.

UNC는 이 발표에서 「화이트일병은 가지고 있는 총으로 경비초소 패레테의 정문 열쇠를 쏴 부수고 달아났으며, 화이트일병이 한국말로 "나는 간다. 도와 달라"라고 외치는 것이 들렸는데, 이소리는 북한측 비무장지대(DMZ) 북한측지역내에서 들려온것 같이 보였다」고 전하면서 화이트일병은 동료미군들이 뒤돌아 오라고 계속 설득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화이트일병이 실종된 후 UNC측은 북한측에 대해 화이트일병과 직접대면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이 요구를 무시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의 중앙통신은 화이트일병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자발적으로 탈주해 왔다고 밝힌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25일 동우추계친선골프
부부동반 디너파티도

토론토 동우회가 개최하는 동우추계 친선골프대회가 25일(토)정오12시 롤링·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부부동반의 디너파티를 겸한 이 골프대회는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부인들도 참석하며, 시상에서도 레이디·그로스부문을 따로 둔 점이 특징.

참가비는 디너포함 싱글 $35,00, 부부 $60,00이며 시상은 그랜드·챔피언, Low Gross, 레이디·그로스, 넷 ABC각 1, 2, 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럭키7등으로 부상이 달려있다.

롤링·힐 클럽은 하이웨이7과 와든(Waden Ave,)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연락처는
MR, 고 284-8807
Mr, 신 591-6803
Mr, 김 266-6358

30년근속 메트로 경찰
맞아죽은 시체로 발견
아들에 전국 수배령

30년간 메트로 경찰로 활약해 온 베테랑 형사가 19일(토) 이토비콕의 자택에서 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희생된 고든·팔머(59)경사의 아들 22살 로버트군을 사건과 관련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로버트군은 아버지 고든·팔머경사가 쓰던 38구경 연발권총을 소지한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낮 하오 2시 그의 던다스·스트릿 웨스트에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 의해 옷을 다 입은채 둔기로 비참히 얻어맞은 시체로 발견된 팔머경사는 17일 하오 온-주 올드·시티·홀에서 순찰근무를 끝내고 귀가했었다.

◆자택에서 맞아죽은 시체로 발견된 팔머경사

경찰은 그가 금요일에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 경찰제23 디비전에 소속돼 올드·시티·홀에 파견근무해온 팔머씨의 동료 짐·헤마누스경사는 팔머씨가 한마디로 성격이 좋은 신사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의 비참한 죽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팔머씨는 7년전 이혼했다.

정동철 노동부차관
캐나다 향발

(서울20일=연합)정동철 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정부사절단이 캐나다를 비롯, 아프리카, 호주 등지의 한국기술인력 고용확대를 돕기위한 사전조사차 지난주말 아프리카로 떠났다.

경제기획원, 상공부와 노동부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절단은 40일간에 걸쳐 케냐, 나이제리아, 가봉, 세네갈, 자이레, 캐나다및 호주를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다.

이들 사절단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을 위로 방문하고 한국기업이 이들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면세 시범상점
나이아가라등 미국접경에

(오타와)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을 위한 고속도로 면세상점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첫 단계로 더글라스(브리티시·콜롬비아주), 에머슨·웨스트(마니토바주)및 라콜르(퀘벡주)등 3곳에 시범으로 각각 1개소의 면세시범상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대변인은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술, 담배, 향수, 카메라 등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 시범 면세점의 개점날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연방정부의 한 관리는 이번 겨울에 오픈될 것을 예상,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소의 시범상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나이아가라폭포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 총 40개의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젊은이부흥집회

한국대학생 선교회(CCC) 이사장이며, 동아시아 CCC 대표로 있는 김준곤목사 초청 성회가 28일(화)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에서 개최된다.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집회로 KIVF, SOWERS, YFC가 주최하며, 교역자협회, 교사연합회, 장로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모임은 매일 하오6시30분 부흥집회, 30일 하오1시에는 리더쉽·트레이닝을 위한 집회로 꾸며진다.

강사 김준곤목사는 EXPO 74집회등에서 많은 젊은이를 기독교로 이끌은 목사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533·2361

영남향우골프대회
차선향씨1등차지

지난 11일 리치몬드골프장에서 열린 영남향우회 골프토너먼트(대회장 서명식)에서 아래 골퍼들이 입상했다.

◆그로스(최상수씨 1등 양보)
1등: 차선향
2등: 김형도
3등: 배경락

◆넷트(A)
1등: 박승락
2등: 송종남
3등: 이상수

◆넷트(B)
1등: 서명식
2등: 김종호
3등: 최무원

◆넷트(C)
1등: 박태식
2등: 공재용
3등: 정상우

◆롱게스트: 김남현
◆니어리스트: 박승락
◆장려상: 장필규
◆행운상: 손정련
◆향우상: 심성택·안수용·김현모·김만구·이중배·최영권·주형회·우홍정

김성렬목사 초청
부 흥 집 회

해밀톤한인교회(1570 Main St, W, Hamilton)는 서울 아현중앙교회 김성렬목사를 초청, 오늘 25일 저녁7시30분 부흥집회를 갖는다.

현 해밀톤교회 담임 김낙중 준목의 부친인 김목사는 26일 하오3시 일요예배서도 설교를 맡는다.

김목사는 약30년간 아현교회 목회를 맡아왔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제5계절"
필진이 바뀝니다.

매주 수요일자에 수고해 주실 제4진 필자는 조정대씨(신인 캐나다한국문인협회장) 이필주씨(목사 순복음토론토교회 담임) 남지연씨(가정주부, 무역가 송인문씨 부인) 김인호(화가)의 4씨입니다.

독자들의 애독칼럼이며, 한인사회의 이정표인 "제5계절"필진이 바뀝니다.

지난 6월9일부터 8월까지 석달간 계속된 제3진의 필자 김현순(음악가), 강요한(목사), 이유소(학생), 이수신(은행가)제씨께 독자들과 함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조정대씨

◆이필주씨

◆남지연씨

◆김인호씨

◆필자소개

● 조정대 : 1941년 경남 창령생
64년 : 동국대학국문과 졸업
66년 : 대구일보사 문화부 기자
68년 : 경북여상고교 교사
72년 : 청주고교 교사
75년 : 캐나다 이민(토론토)
현재 : 캐나다한국문협 회장

● 이필주 : 한국순복음신학대학 졸업
한국 세계선교회 근무
서울 보광동 성광교회 목회
순복음토론토교회 7년간 목회

● 남지연 : 연세대정외과 졸업
동행정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양학부 강사
산업경제신문사 기획위원
77년 : 토론토 이민
※무역인 송인문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둠

● 김인호 : 1956년 인천출생
72년 : 캐나다 이민
77년 : Clarkson Secondary School 졸업
80년 : Dorothy Stevens장학금 이태리·플로렌스 유학
81년 : 온타리오미대(O. C. A)졸업
동교 조교
"Gallery 76"에서 3인전
82년9월~10월 : Wayside화랑서 6인전.

◆국립발레학교 유치부학생 선발 시험이 18일 본교 유치부교실에서 있었다. 카렌·케인이나 베로니카·테넌트와 같은대발레니나가 되려는 꿈을 키우고있는 7세내지 8세어린이 1백여명이 정원40명을 뽑기위한 선발시험에 이날 응시했다. 사진은 발레리나 케드린·바피앙이 한응시자 어린이의 발을 검사해 보고있다.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1982~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개강안내

◇기　　간 :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쌔인·클레어×영)
◇자　　격 :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 기초반—기본동작Ⅰ. 화관무, 아리랑환상곡, 즉흥무
연구반—기본동작Ⅱ·Ⅲ, 부채춤, 살풀이, 탈춤, 장고춤
◇복　　장 :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 김미영: 499-5079

노년회 단풍놀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단풍놀이를 떠나려고 합니다. 마치 한국 어느 산모퉁이에 온것같은 Belfountine과 Hockley로 여러분을 모시고, 푸짐한 상품도 함께 준비했읍니다. 오셔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1982년 10월 9일(토)
오전9시—오후6시
장소 : Belfountine & Hockley
점심 : 각자지참
회비 : 1인당 9불
신청 : 노년회 755—8079
신청마감 : 10월7일까지
출발지점 : 노년회 사무실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 영 호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자 ②

직장에서 해고안당하는 10가지 요령

◉다섯째, 회사에 충성하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일에 임해야 한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사에 대한 충성이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할일을 완수했다 해도 그에게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찾지 못하면 고용주는 그를 진심으로 신임하지 않는다.

내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일에 대처한다면 보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도 회사에 대한 충성의 일부다.

◉여섯째, 업무에 보람을 갖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일은 이 회사를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만이 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내 입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눈속임을 한다든가 적당히 끝내버린다든가 하는 일은 내 임무 자체를 경시하기 때문에 생길수 있다.

◉일곱째, 문제화시키지 말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헤가티씨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한다. 작은 일이 발생했을때 그것이 큰 문제라고 접내지 말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보스의 방문을 요란스럽게 열어젖히며 「어쩌면 좋아요? 배가 아직 도착안되었다는군요」하고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조용히 방문을 노크한 후 침착한 표정으로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운송회사에 전화했더니 하루쯤 늦어진대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여덟째, 문제를 숨기려 들지 말자.

나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감추려들면 거기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상사에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해결방법도 제시한다.

◉아홉째,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보스가 하라는 일만 끝내고 그외의 일은 남의 일인듯 방관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솔선해서 일거리를 찾아 나갈수도 있고, 회사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보스에게 건의해 볼 수도 있다.

회사내에서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해서 생길때에는 번번이 그 문제때문에 고민만 하지 말고 무언가 미리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서 보스에게 건의해 보는 것이 좋다.

◉열째,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부부사이나 부모자식간에, 혹은 친구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간에 혹은 동료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은 퍽 발전적인 방법이다.

회사내의 문제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생길수도 있고, 또 사소한 오해의 실마리가 풀릴수도 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71>

金聖鍾작

어떤殺人 ⑱

겁에 질린 그녀는 또 2천만원 건네고…

모세(毛世)는 반말로 가볍게 찡겼다.

육체적인면에서 우선 두봉은 모세의 반쪽밖에 되지 않았다. 자세도, 말하는 것도 불안정해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당당했다. 범법자이면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고 있었다.

『반말하지 마시오. 난 아직 당신한테 반말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요.』

『이거 봐, 박문자 여사.』

모세는 두봉을 묵살하고 문자를 불렀다. 그녀는 오화겸에 붙어 앉아 그를 노려 보고 있었다.

『나 말장난하자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돈을 내놓을거야, 안내놓을 거야?』

『돈은 내놓을 수 없어요.』

두봉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가지. 곧 후회하게 될 걸.』

그가 일어서려는것을 두봉이 제지했다.

『잠깐 기다려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난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

『반말하지 말아요.』

두봉이 다시 주의를 주었다.

『나한테 그런걸 바라지는마. 이 샌님 선생.』

『뭐, 뭐라고?』

두봉이 눈을 부릅뜨자 그는 가소롭다는듯 픽하고 웃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박문자 여사, 잘 있어요.』

그는 문자의뺨을 손으로 톡톡두드렸다. 그리고 현관쪽으로 거침없이 걸어갔다.

『안돼요! 가면 안돼요!』

문자는 발딱 일어서서 소리쳤다.

『너! 가지마!』

朴男 그림

두봉도 질세라 소리쳤다. 그리고 모세쪽으로 맹렬히 돌진했다.

모세는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여자들 등이나 쳐먹는 너같은 놈은 가만 둬서는 안돼! 너같은놈은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해! 가자! 나하고 경찰서에 가자!』

두봉은 모세의 덜미를 단단히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모세는 몸을 일으키면서 팔을 가볍게 움직였다. 그러자 기세등등하던 두봉은 배를 싸쥐면서 허리를 구부렸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모세는 몸을 돌리더니 주먹으로 두봉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한방에 두봉은 허수아비처럼 나가 떨어졌다. 그것을 본 문자는 바들바들 떨었다.

『목을 분지르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

모세는 두봉을 내려다보면서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문자쪽을 바라보았다.

『할 말 없지? 가도 되겠지?』

문자는 와들와들 떨다가 발작적으로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치에다 던졌다.

『2천만원이에요. 가져가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어.』

『제가 잘못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통일교 제작 영화 「인천」

토론토 상영개시, 한국현지 로케

통일교가 제작한 영화 『인천』이 지난주 토론토의 10개 영화관에서 개봉됐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1,250개극장 북미전역에서 일제 상영되기 시작한 이 영화는 로렌스·올리비에경이 더글라스·맥아더 장군으로 출연하며, 자크린느·비셋, 벤·가자라등이 공연한다.

한국에서 직접 현지촬영한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한국동란을 소재로 한 총제작비 $4천8백만의 거작.

문선명씨가 특별고문역으로 제작에 관여했고, 별세한 TV극 『도망자』의 주연 데빗·젠센의 생애 최후 출연작이기도 하다. 70년 하반기 촬영·제작 완료했으나, 배급사를 못찾아 상영이 지연됐었다. MGM/UA사가 배급을 맡았다.

로렌스·올리비에경의 50년 연기경력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영화의 마지막에 그가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은 "꼴불견"이라는 것이 영화계의 비평이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인 엑스트라가 동원되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흥미롭기도 할 듯.

이미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앞에 반통일교포의 데모소동까지 벌어졌었다.

토론토부근 상영 영화관은 다음과 같다.

힐리웃 924-5511
플레이스 466-7226
쉐라톤센터 864-1412
세다브레 438-1291
웨스트웃 239-1145
스카이웨이 675-9096
노스욕 쉐리단몰 249-784

막빌 477-6314
픽카링·쉐리단 839-2011
7 & 27 드라이브인 851-1221

◆통일교가 제작한 영화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으로 분한 로렌스·올리비에와 한국 현지로케로 만들어진 6.25의 한장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63

글·高羽榮 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씨알한국인학교

특수 프로그램

★중등부 과 목 : 영 어 (캐나디안 정규교사가 지도함)
수 학 (Commodore 콤퓨터64 사용)
음악이론 (콘서바토리 시험을 위한것)
고전무용 (전문적인 레파토리 지도)
수업료 : 한 과목당 1년에 $140, 두 과목당 1년에 $260

★초등부와 유치부
과 목 :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무용, 스케이트와 축구(이상 8과목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은 캐네디안 정규 교사가 가르칩니다.
수업료 : 1년에 두 과목당 한학생 $180, 두학생 $350, 세학생 $450
버스비 : 두대의 학교 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하실 곳은 ☎ : 441-2986 여정자 선생.
9월20일까지 신청마감.
1년에 한학생 $135, 두학생 $260, 세학생 $350
시간과 기간 :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9월25일부터 내년6월까지
등 록 : 9월25일 개학날 당일 9시부터 등록 접수하며 위의 학비는 2번의 Post Date 수표로도 접수합니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씨알한국인학교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중고등부 초보반 :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 이미 한국어를 공부한 어린이

★초등부 초보반 A : 1, 2학년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초보반 B : 1, 2학년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중급반 A : 3학년 이상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B : 3학년 이상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유치부 유치반 4살 이상 어린이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e Ave. Toronto
시 간 : 9월25일 개학
매 토요일 9 : 30분부터 12시까지(2시간30분 수업)
학교버스 : 씨알학교 특수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성인영어반(무료) : 토론토 교육국의 후원으로 발음과 단어, 읽기등에 중점을 두는 성인 영어반을 같은 시간에 합니다.

19개項 즉각是正 요구

政府 歪曲시정具體案 빠르면 週內 日에 전달

3·1운동「暴動」표현등 감정자극 最近世 우선

早期시정 20·기타是正 8項포함 未定

일본 역사교과서 歪曲에 대한 한국측의 구체적인 是正要求案이 금명간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일본측에 전달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정부 관련부처가 우리측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최종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금주안에, 늦어도 내주초에는 일본측에 공식전달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우리측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이 정부차원의공식채널이아닌비공식채널을 통해 이미 일본정부측에 전달된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하고 『나까무라(中村弘海) 의원등 韓日의원연맹 일본측교과서 特委위원 3명이 15일 來韓한것도 이문제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李建鎬 韓日의원연맹 本特委위원장도 이날 『일본特委위원3명이 우리측 是正요구안을 거의 파악하고있는것 같다』고 말하고 『15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원들은 우리측 요구안이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우리측에선 양보할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의원연맹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우리측 요구안을 일본정부에 공식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정부차원에서 전달할경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의원연맹이 전달창구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의원연맹을 통해 공식전달될경우는 전달시기가 다소 지연, 교과서特委 양측합동회의가 열리는 이달말께가 될것같다』고 전망했다.

이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마련중인 是正요구안에는 1900年代이후 日帝식민통치기간을 중심으로한 最近世史중 ①명백한 歪曲부분 ②국민감정자극부분 ③국가主權박탈에 관한 부분 ④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널리알려진부분등 일본정부가 즉각시정해야할 19개항목이 포함될것이라고 밝히면서 즉각시정이외의 早期시정사항(20개項)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其他是正사항(8개項)은 古代·中世·最近史등을 비롯하여 中長期的시정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 요구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即刻是正해야할事項(19개項)=▲일본의 한국침략 ▲제2차 韓·日협약 ▲高宗退位 ▲韓·日新協約 ▲義兵 ▲日帝의 韓國併呑 ▲武斷통치 ▲土지약탈 ▲3·1독립운동 ▲關東大震災 ▲한국어말살 ▲神社참배강요 ▲創氏改名 ▲徵兵 ▲徵用 ▲挺身隊 ▲抗日독립운동 ▲安重根의사 ▲日帝의 強占연장

◇早期是正해야할사항(20개항목)=▲倭寇 ▲朝鮮前期의 對日교섭 ▲通信使왕래 ▲壬辰倭亂 ▲韓日修交 ▲雲揚號사건 ▲江華島조약 ▲壬午軍亂 ▲甲申政變 ▲防穀令 ▲東學農民운동 ▲甲午改革 ▲明星皇后弑害 ▲韓日議定書 ▲海牙特使 ▲3·1운동원인(1) ▲〃(2) ▲植民통치의 전환 ▲光州학생운동

◇其他 是正해야할 사항(8개항)=▲漢郡縣의 위치 ▲帶方郡위치 ▲고구려建國 ▲발해의 영토 ▲한국문화의 東流(金屬器와 農耕문화) ▲한국문화(3國문화)와 일본과의 관계 ▲任那經營說 ▲新羅통일

수하르토 내달訪韓

【자카르타AP=聯合】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이 오는 10월 2주간에 걸쳐 스페인 미국 한국및 日本을공식방문한다고 아담·말리크 부통령이 15일 밝혔다.

히탐 말聯副首相에 全대통령、훈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말레이지아의 무사·빈·히탐 부수상겸 내무상 일행을 접견하고 무사부수상에게 修交훈장 光化章을 수여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의 토머스·켈러회장 (스위스)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아리엘·샤론이스라엘국방상과 라파엘·에이탄참모총장 (쌍안경을 든사람)이 15일 베이루트의 한 건물지붕에서 이스라엘군의 西베이루트진격을 지켜보고있다。 【베이루트 15日AP電送=聯合】

이軍、西베이루트 占領

회교地域 완전장악 게마엘爆死 12시간뒤

【텔아비브15日AP·UPI=聯合】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은 바시르·게마엘 레바논대통령당선자가 爆死한지 12시간후인 15일새벽(현지시간) 西베이루트로 진격, 좌익 민병대와 시가전을 벌인후 회교지역을 완전장악했다고 이스라엘軍 사령부가 발표했다.

이스라엘軍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軍이 게마엘장군 사망후 기독교도와 회교간의 內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탱크와 해군함정의 지원하에 西베이루트진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스라엘軍의 西베이루트진격 작전과정에서 이스라엘軍 2명이 사망했으며 42명이 부상했다고 밝히고 부상자중 5명은 중태라고 덧붙였다.

내년授業料 10%인상

鐵道料 7~12%…우편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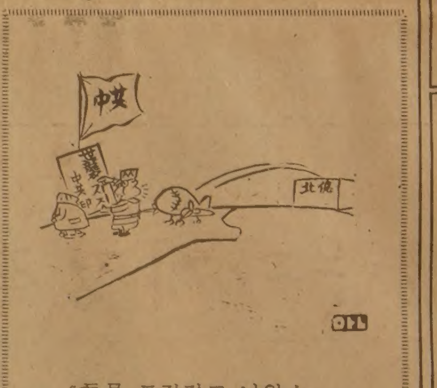
정부는 물가안정을위해 내년에도 公共料金인상을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나 시설확충을 위해 들어가는 돈은 수익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에따라 각급학교 수업료를 10%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 철도요금과 우편요금등 일부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배값과 전기·전화료등은 인상치않기로했다.

철도요금의 경우는 철도사업체 수지추이와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인상시기와 인상방법(한번에 올릴지, 두번에 나누어올릴지)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게되나 7~12%정도 인상하는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고 우편요금 역시 환율및 우편대체업무등 자체수입규모에따라 인상폭이 달라지게되나 일단인상하는것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社會漫評



"동무 도장갖고 나왔소…"

獨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南榮나이론 1千12萬원

(南相水회장 임직원 일동)

<16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南相水씨

◇宋三錫씨

◇申寀休씨

◇孫曰成씨

◇임덕재씨

(株)모나미 宋三錫대표 外 3백74만원
금란女中·高校박정례교장 外 2백70만원
서울팔래스호텔(申寀休회장 임직원일동) 2백50만원
서울미성국교 홍광식교장 外 1백91만원
仁德工專大學 金慧蘭학장 外 1백70만원
서울탑동국교 박창선교장 外 1백67만원
靜石航空工高 金永爽교장 外 1백57만원
韓國開發리스 李暢根사장 外 1백47만원
大成縫織(株) 孫曰成대표 外 1백28만원
신갈새마을금고(김덕영이사장 임직원 일동) 1백18만원
靑湖實業(株) 朴光昭대표 外 1백14만원
建設證券(株) 孫錫中대표 外 1백6만원
同信運輸(株) 崔亨圭대표 外 1백만원
韓一티씨商事 任德宰대표 外 1백만원
서울원촌국교 96만원
서울개화국교 76만원
大原紙業(株) 61만원
서울영림국교 60만원
서울상명附國 57만원
서울창동국교 51만원
서울우유낙우회 50만원
서울경기국교 42만원
仁川동명국교 36만원
서울영남국교 33만원
東珍藥局 金勢鎬씨 30만원
종로5가防犯委 30만원
낚시회聯合會 30만원
水踰4洞防衛協 20만원
仁川안일목재 20만원
東國大學院 白鳩會 20만원

▲南榮나이론(株) 회장 南相水씨외임직원일동=1千12만원
▲(株)모나미 대표이사 宋三錫씨 외임직원일동=3백74만3천5백원
▲금란여자중·고등학교(교장 박정례) 교직원및학생일동=2백70만7백40원
▲서울팔래스호텔 회장 申寀休씨(국회의원) 외 임직원일동=2백50만원
▲서울미성국민학교(교장 홍광식선생) 전교생(대표 6년 박성호·오유진·조수영·인솔교사 송치호선생) 및 교직원 일동=1백91만2천5백65원 【소년한국일보접수】
▲仁德工業專門大學 학장 金慧蘭씨외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70만원
▲서울 탑동국민학교(교장 박창선선생) 전교생(대표 6년 김학준·김정연·5년 김현준·인솔교사 성동제선생)및 교직원일동=1백67만1천6백20원 【소년한국일보접수】
▲仁川靜石航空工業고등학교(교장 金永爽) 교직원및학생일동=1백57만2천2백70원
▲韓國開發리스(株) 사장 李暢根씨외임직원一同=1백47만6천9백20원
▲大成縫織(株) 대표이사 孫曰成씨=1백만원 同임직원일동=28만9천1백10원
▲특별법인 신갈새마을금고(이사장 김덕영)=1백만원 同임직원一同=18만5천원 【水原支社접수】
▲靑湖實業(株) 대표이사 朴光昭씨외 직원일동=1백14만5천4백20원
▲建設證券(株) 대표이사 회장孫錫中씨외 임직원일동=1백6만원
▲서울城東區華陽洞50의1 同信運輸(株) 대표이사 崔亨圭씨=1백만원
▲(株)韓一티씨商事 대표이사 任德宰씨外=1백만원
▲서울원촌국민학교(교장 이용훈 선생) 전교생(대표 6년 전성호·임문정 5년 고석진 인솔교사 홍순태 선생) 및 교직원일동=96만6천2백86원 【소년한국일보접수】
▲서울개화국교(교장 김남전) 전교생(대표 6년신인경·인솔교사 남명용) 및 교직원일동=76만9천65원 【〃】
▲大原紙業(株) 대표이사 姜洙桓씨=50만원 同임직원일동=11만원
▲서울영림국교(교장 김팔암) 교직원및 학생일동=60만2백60원
▲서울상명부국교(교장 이은철) 전교생(대표 6년 일종호·5년 백선오·김지혜·인솔교사 강태숙·김소강) 및 교직원일동=57만5천5백15원 【소년한국접수】
▲서울우유조합주부 낙우회일동=50만원
▲서울창동국교(교장최윤철)교직원일동=51만3천원
▲서울경기국교(교장 강희준) 4년 일동(대표 유민형·김재영·류병길·길효규·장서정·유성민·인솔교사 임재환)=42만3천1백원 【소년한국일보접수】
▲仁川동명국교 교직원및 학생일동=36만6천8백원
▲서울영남국민학교(교장 신영철선생) 전교생(대표 6년 김태영·김현숙 5년 최익창·인솔교사 안경춘선생) 및 교직원 일동=33만5천6백58원 【소년한국일보접수】
▲東大門警察署종로5가방범위원회一同=30만원
▲東瀋藥局(종로4가167의1) 대표金勢鎬씨=30만원
▲사단법인全國낚시회聯合會(회장 桂昌業) 회원일동=30만원 【日刊스포츠접수】
▲水踰제4洞防衛協議委員一同=20만원
▲仁川北區佳佐洞안일목재직원일동=20만원
▲東國大行政大學院 白鳩同友會회장 朴濟相씨외회원일동=20만원

◇고침=16日字 육군제7163부대 장병일동 1백50만원은 1백15만원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인덕공업전문대학생과장과학생대표들.

◇상명사대부속국교인솔교사와학생대표들.

◇경기국교4학년어린이대표들.

地平線

『살아있는 宗教史의 박물관』— 史學者 아널드·토인비는 레바논을 일러 이렇게 표현 하였다. 그만큼 레바논에는 여러 종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마론派기독교 (전인구의 30%)、그리스正教 (10%)、아르메니아正教、아르메니아舊教、시리아正教와 舊教、그리고 라틴舊教、또 非기독교종파로서 전체인구의 38%를 점하는 이슬람教의 수니派、시아派、드루즈派등…。「公認」되고 있는 종파만도 17개 이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人口 몇%라는 수치는 전부 推計일뿐 이다. 도시 레바논에서 國勢調査라고 실시한것은 1932년이었고 그후 한번도 새人口조사를 한 일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인구나 종교세같은 것은 알길이 없다. 유엔이 추계한 오늘의 레바논 인구는 2백30만내지 2백60만명. 인구로 치면 오붓한 小國이다. 그런데도 이 人口역시 잡다하게 구성되어있다. 술름의 각종족、小아시아에서 코카서스、발칸半島에이르기까지의 여러 종족들로서 가위 「民族의 박물관」이라고 할만한 지경이다. ▼이小國을 프랑스가 국제연맹결정에 따라 1920년부터 委任통치하면서 「레바논大國」이라 이름붙였다. 이 「小國」이 大國다운품도를 유지할수 있었던것은 프랑스가 통치할때 萬事에서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비율을 6對5가 되도록 한것 때문이다. 현 레바논議會도 그 정원은 이 비율을 合친 11의 배수인 99명이다. 宗教比例代表制라는 선거방식으로 議席비율을 6대5로 맞춘다. ▼그뿐아니라 레바논에서는 大統領은 마론派、首相은 수니派、議會議長은 시아派에서 각각 선출되는것을 不文律로 삼고 있다. 사르키스 現대통령은 마론派는 아니나 온건 기독교도이고 14일 암살된 게마엘 대통령당선자는 골수 마론派다. 그암살의 배후는 아직 밝혀 지지 않고 있으나 게마엘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기울고 있는데다 그동안 팔레스타인難民의 유입으로 이슬람교도 불어나 종래의 「6대5」안배원칙이 빛을 잃은데도 일인은 있으리란 추측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 건전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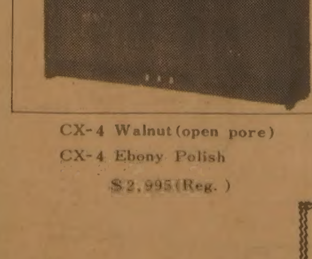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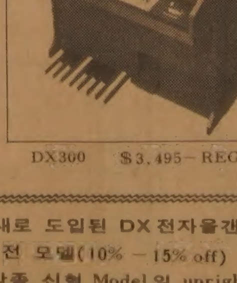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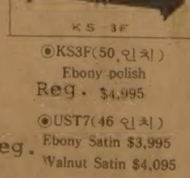
DX300 $3,495—REG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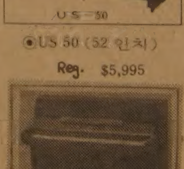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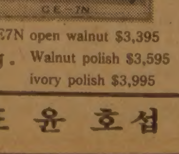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對蘇관계改善 접촉희망

中共副首相 萬里 지난달 이미 예비회담

【東京·北京AP=聯合】중공부수상 萬里는 15일 중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공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소련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萬里는 이날 北京에서 지난달 세계 제2의 최고봉인 喬戈里峰(해발8,611m)을 등반한 일본 산악회소속 산악인을 만난 자리에서 또 한 평화5개원칙의 기반위에서 베트남과의 관계개선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신문들은 北京발로 보도했다.

萬里는 中蘇문제해결에 필요한 전제조건의 타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중공외무성의 소련·동구국장 于洪亮을 지난달 모스크바에 파견, 소련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中共외무성은 이날 지난 4년간 중단돼온 中蘇국경회담이 재개돼야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中共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경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지난 2월3일자 소련외교문서에 대해 중공이 아직 공식 회답을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中·蘇양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내달초 北京에서 「예비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레바논 長期주둔준비"

아라파트, IPU調査委구성 호소

【베이루트SPA=聯合】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은 15일 이스라엘군의 西베이루트진입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장기주둔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파트의장은 이날 로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모로코의 페즈아랍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중동평화안이 팔레스타인문제의 정치적 해결을위한 명백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열리고 있는 국제의원연맹(IPU)이 레바논내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행위를 조사하기위한 위원회를 구성할것을 호소했다.

◇아라파트 敎皇예방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5일 교황청을 방문한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을 만나고있다. 【바티칸시티15日AP電送=聯合】

敎皇, 팔國創設지지

아라파트會談 예루살렘 國際化도

【로마聯合】로마를 방문중인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은 15일 교황 요한·바오로2세와의 회담을 통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창설에 대한 새로운 지지를 받아냄으로써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로마주재외교관들이 16일 말했다.

교황과 아라파트의장간의 회담이 끝난직후 교황청이 발표한 성명은 요한·바오로2세가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호의를 표시하고 中東분쟁의 평화적인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 『예루살렘이 기독교와유대교 회교등 3대종교신자들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살수있는 도시가 돼야한다』고 말해 예루살렘市의 국제화를 호소했다.

아라파트 의장은 교황을만난뒤 이날밤에 밀리오·콜롬보 이탈리아 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프랑스에 대해 이스라엘이 필립·하비브 美中東특사가 마련한 베이루트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해줄것을 요구했다.

요르단江西岸등 「팔」독립국創設

「브」6개항平和案제시

【모스크바AP·UPI=聯合】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15일 이스라엘군 점령하의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6개항 중동평화안을 제시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알리·낫세르·모하메드 남예멘 대통령을 위해 크렘린궁에서 베푼 만찬회석상에서 연설을통해 「레이건미대통령의 최근 중동평화안이 팔레스타인들의 독립국가창설권을 부인하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6개항 평화안을 제시했다.

4일 施政연설

3黨부총무 定期국회日程 합의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부총무들은 16일상오 제114회 정기국회 日程을 논의, 오는10월4일 정부의 施政연설을 들은뒤 10월5일 정당대표 연설, 10월6일부터 13일까지 對정부질문을 벌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부총무들은 이날 모임에서 오는 11월27일까지의 일정에 잠정합의했는데 常委활동기간은 당초 43일(일요일포함)에서 11일을 연장한 54일로 절충했다.

한편 3黨총무들은 17일상오 회담을 열어 아직 합의를 보지못한 對정부질문議題와 계류議案의 처리문제등을 절충할 예정이다.

국회·政治懸案협의 3黨3役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들은 16일하오 安養컨트리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금년정기국회의 운영방향과 정치현안문제등에 관해협의했다.

올들어 세번째로 가진 이번3役모임에서는 日本의 역사교과서歪曲과 관련한 국내외정세, 정기국회운영방안및 경제문제, 靑瓦臺회담후속조치및 정당의 운영비조달을위한 정치자금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韓日外相 뉴욕會談 反對할 理由없을듯 外務部밝혀

외무부의 한당국자는 16일 일본측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經協문제를 다루기위한 韓日외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관해 『아직 공식 의사를 통보받지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바 없으나 일본측으로 부터 공식적인제의가 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歪曲 문제로 국민감정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교과서문제와 韓日經協문제는 별도로 대처한다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고트브자데 處刑

【런던聯合】사데크·고트브자데 前이란외상이 16일밤 처형됐다고 이란의 관영IRNA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고트브자데 전 외상은 이란의 최고실권자 아야툴라·호메이니옹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올稅入결함 6조엔 스즈끼 記者회견서

【東京=宋孝彬특파원】스즈끼수상은 16일하오3시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년도 세입결함이 5~6조엔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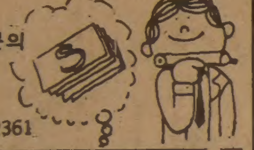
海外토픽

平均연령 계속72세

★이번 中共黨 第12期제1차 중앙위전체회의(1中全會)에서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원25명과 정치국후보위원 3명등 28명의 평균연령은 지난77년11期1中全會때와마찬가지로 72세로 나타났다.

이들중 가장 연령이 낮은 사람은 중국總工會(勞組) 주석 倪志福(49)이며 그다음이 대외경제무역부장 陳慕華(후보·女·61)이다.

최고령자는 全人代상무위원장 葉劍英(85)이고 그다음이 葉과함께 故毛澤東의 옛동지인 聶榮臻(83)과 徐向前(80)등이다. 【北京=AP】


광고문의 533·2361

女記者칼럼

우리世代의 名優들

張明秀 ㊶

지난 8월12일 헨리·폰더가 세상을 떠난데 이어 한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잉그리드·버그먼, 그레이스·켈리등 세기의 대스타들이 사라져 갔다. 그레이스·켈리가 세상을 떠났다는소식은 쓸쓸해진 가을기분을 더 쓸쓸하게한다.

얼마전 밤시간에 TV를 켰더니 게리·쿠퍼와 열연하는 잉그리드·버그먼의 아름다운얼굴이 나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밤송이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버그먼이 「코가 서로 닿을까봐」 염려하면서 게리·쿠퍼와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그시간은 유감스럽게도 「스크린英語」 시간이어서 몇장면만으로 영화가 끝나고 말았지만 잉그리드·버그먼의 젊고 신선한 얼굴은 오랫동안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神은 한 여인에게 그처럼 不可思議한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를 번민하게 하고, 늙어가게 하고, 암에걸려 신음하게 하고, 棺에 담겨져 한줌의 흙이되게 하셨다. 이 너무도 당연한 生의섭리가 그토록 감상적으로 받아들여 지는것은 그가 바로 「우리시대의 배우」 이기 때문이다.

여학교 시절 우리 친구들의 방에는 외국 영화잡지에서 뜯어낸 잉그리드·버그먼, 그레이스·켈리, 비비안·리, 로미·슈나이더, 내텔리·우드등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윌리엄·홀든, 로버트·테일러, 그레고리·펙, 게리·쿠퍼등의 사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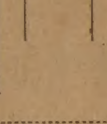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단체관람했던 우리는 온학교가 와글와글 했을만큼 그 영화를 미칠듯이 좋아했었다.

그후에 본 어떤 영화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처음보던때의 그 흥분을 능가하지 못했던것처럼, 요즘에나온 어떤 배우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비비안·리나 그레이스·켈리를 능가하지는못한다.

미친 힝클리를 더욱 미치게 한조디·포스터나 브룩·쉴즈, 나타샤·킨스키등의 요즘 美女배우들이 비비안·리나그레이스·켈리가 맡았던 役을 다시 맡을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그레이스·켈리의 代役이 되지는 못한다.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세대에서 나이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갑방(同甲친구)」가 되는것을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그 同甲의 友情을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세대에서 짐작할수없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共有해온 흥과 기쁨, 아픔과 고통이있다. 함께 들어온 노래, 함께 다니던 찻집, 함께보던 영화, 함께 외치던 분노가 있다. 세월이흘러 「共有해온것들」이 더 멀리 묻힐수록 같은 世代에대한 소중한느낌은 더욱 짙어진다.

찰리·채플린을 보내면 아버지 世代의 쓸쓸함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것처럼 그레이스·켈리나 잉그리드·버그먼을 보내는 우리 世代의 쓸쓸함을 오늘의 20代는 알수없을것이다. 헨리·폰더…여학교때 사진을 붙여놓던 우리시대의 배우들이 작년금년에 걸쳐 자꾸만 사라져가고있다.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18>

미리 온 아이 ㉑

햇빛이 넉넉한 거말고도 산동네가 좋은 까닭은 오목이에게 또 있었다. 이 도시 하늘아래 그 산동네보다 더 방값이 싼 동네가 있을 것같지 않은 동네꼴이 그거였다.

『영감님, 영감님』

일환이가 영감을 불렀다. 영감이 짐짓 노기띤 얼굴로 돌아섰다.

『영감님이 이왕 수고해주신김에 끝까지 봐주셔야지 그냥가시면 어쩝니까?』

『그럼 내 말대로 하겠소?』

『아뇨, 차라리 방세나 보증금을 남보다 더내는방향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이봐, 자기 지금 무슨소릴 하고있는거야?』

오목이는 질겁을해서 더욱 세게 일환이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안되다니? 그걸 말이라고 해?』

영감이 입을 헤벌리고 웃었다. 드문드문 빠진 앞니때문에 문살이 나간 문짝 처럼 허술한 인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 나갔다. 빈방이 몇개나서서 그중에서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가 있었다.

그들 세식구가 땅속집을면하고 산동네로 이사하는 날은 날씨가 극성으로 추웠다. 산동네의 넘치는 햇빛은 이상할이만치 온기가 없었다. 건조한 바람이 연탄재를 말아다가 초라한 이삿짐에 마구 흩뿌리고, 그들의 살갗을 사정 없이 때렸다. 채찍처럼 매운 바람이었다.

밤새도록 연탄아궁이 마개를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식구는 똘똘 뭉쳐서 떨어야했다. 밤전체가 파도에 실린것처럼 밤새도록 출렁댔다.

바람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목이는 좀체 흥분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이루었다. 자신의 행복이 꿈만같았다.

이사온 첫날밤 그녀가 빈것은 부자될 것도, 돼지꿈을 꿀 것도 아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도 오늘같이만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빌고있었다.

비록 이 도시에서 방값이 제일 싼 동네이긴 하지만 남의 동정으로 거저 사는 집을 면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목이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돼지꿈에 연연할 필요없이 느긋하고 떳떳했다. 그건 그녀가 태어나서 최초로 맛본 자립감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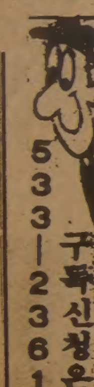
게다가 일환이는 방 얻으러 다닐때의 늠름하고 자상한 아버지노릇, 남편 노릇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는 방속의 외풍으로부터 모자(母子)를 보호하기위해 그의 넓은 가슴에 모자를 단단히 품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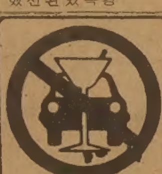
세 몸이 하나로 똘똘뭉친 결속감이 한도좋아서 오목이는 그 방의 외풍조차 고마왔다.

그가 가장노릇을 포기하고 나가 지낸 한달동안에 대해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물어보지않은채였다. 실상 그녀는 그가 그 동안에 어떻게지냈을까가 별로 궁금하지않았다. 정말 궁금한 건 그 동안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였다. 그 궁금증을 억제하긴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란 남이 눈으로 볼수없는 생각이란걸 통해 얼마든지 용서받지못할 짓을 할수있다는걸 알고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생각에 대해 생각할적마다 슬픔과 수치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그의생각을 덮어두는걸로 자신이 그동안에 한 용서받지못할 생각을 용서받은 걸로 치부하고싶은지도 몰랐다.


구독신청은 533-2361



마두라 海域 시추 결과

빠르면 月末께 판명

코데코社 深度 7천피트도달…油徵없어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의 油田개발결과가 빠르면 이달말께 판명될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역의 조광권자인 우리나라의 코데코 에너지社는 지난 7월30일 1개孔을 뚫기시작했는데 시추작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深度 7천피트정도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기계作動고장으로 10일정도 늦어져

코데코에너지社는 그동안 4천18㎢에 달하는 지역에대한 탐사자료를 정밀분석, 이지점을 선정, 시추작업을 벌이고있는데 深度 1만피트까지 뚫을예정이다.

현재까지의 탐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深度5천내지 6천피트의 지층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기대했으나 경제성있는 油徵을 발견하지 못해 당초계획대로 1만피트까지 뚫기로 됐다는 것이다.

코데코에너지社는 그동안 기계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10일정도 시추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계획인 이달중순 보다 늦은 이달말께까지는 1만피트까지 뚫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코데코에너지社는 이번 시추지점에서 석유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예정대로 금년에 2개孔을, 내년 2월까지 2개孔등 모두 4개孔을더 뚫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해역엔 최소한 9억배럴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시추지점이 배사구조에 조금만 빗나가도 油田을 발견할수없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상반기중에 제4광구 5광구 7광구에서도 시추작업을 벌일방침이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마음의 병

不安·不滿때문…原因찾아 제거해야

국민학교 4학년인 한여학생이 입원한 일이 있다. 입원 동기는잦은 기침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기침은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기침이 아니라 1분간에 50~60번이나 하는 잔기침 이어서 환자 가까이 귀를대고 들어야만 들릴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기침이었다. 하기야 큰소리를 내는 기침을 1분간에 그처럼 자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저 연속 적으로 캑캑하는 그런 기침이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억지로 하는 기침같기도했지만 기침을 하루종일 억지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입원을 시킨뒤 가능한 검사를 다해 보았으나 신체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해낼 수 없었다. 환자는 마침내 정신과에 의뢰되었고 드디어 그원인을 밝혀 낼 수가 있었다.

이아이는 4녀1남중 세째번 아이였는데 위로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과남동생이 있어 귀여움을 받을만한 처지가 못되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년전 백일해를 앓게 되었다. 부모는 심한 기침으로 고생하는 딸아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그때 비로소 너무 무관심하게 대했다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 각별히 보살펴 주게 되었다 한다. 이아이는 기침을 하니까 부모들이 잘 대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백일해는 다나았지만 『기침이그치면 지금같은 사랑은 받을수 없다』는 내재적인 걱정 때문에 잔기침을 계속 하게된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꾀병과는 다르다. 환자 자신은 그 증상을 몹시 괴로와 하고 있었다. 다만 내재적인 잠재의식만이 그와 정반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환자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말한것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아이들이 눈을 자주 깜빡인다, 코를 실룩거린다, 목속에 가래가 낀것같아 잔기침을 자주 한다, 머리짓을 이상하게 한다든가 어깨를 이상하게 흔드는 등의 버릇을 지닌 아이들은 흔히 볼수 있다.

이런 버릇은 이르면 두살정도에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6세이상 사춘기사이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런 버릇이 나타나게되는 원인은 앞서 예로든 경우처럼 가정내는 물론 주위환경에대한 불만이나 불안이 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 이런버릇은 야단을 칠것이 아니라 감춰진 원인을 찾아내 제거해주는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李琦寧 【醫博·延世大의대소아과교수】

Ontario

온타리오 정부

인종관계정책 지침서

온타리오정부는 모든 시민 각각이 평등한 사회를 창조하는데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문화및 인종간에 평등과 조화의 추구를 좇아 결단성있고 분명한 공공지도력에 중요점으로 인식됐읍니다.

정부는 오랜 세월을 온타리오내 다양한 문화및 다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읍니다. 이러한 결과 다민족의 상이점은 모든 온타리오주민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행동에 의해 반박여론이 제기됐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금 인종관계에 있어서의 정책을 명백히 하고자 하며,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갖고 독특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 장기간의 공약설정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차 정책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I 어떤 종류의 인종구별은 온타리오내에서는 허용치 못합니다.

II 온타리오내 모든 사람은 어떤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의해 영향받음 없이 생활, 작업,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권리를 갖습니다.

III 온타리오내에는 과학적으로 거짓으로 알려지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종의 학설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없읍니다.

IV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북돋아주고, 확실한 이해에 의해 인종편견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할것입니다.

V 인종차별의 행위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새 법전및 온타리오 인간권리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VI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행위는 온타리오내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안전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강력한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정부는 함께 일하는 호의를 가진 모든 사람을 방문하게 될것이며, 각 남·녀 개인및 어린이에게 그들의 보다나은 행복을 위해 최대한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사회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WILLIAM G. DAVIS PREMIER
R. ROY McMURTRY ATTORNEY GENERAL
RUSSELL H. RAMSAY MINISTER OF LABOUR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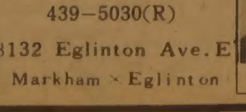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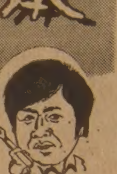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9>

이웃집 넘어간 감나무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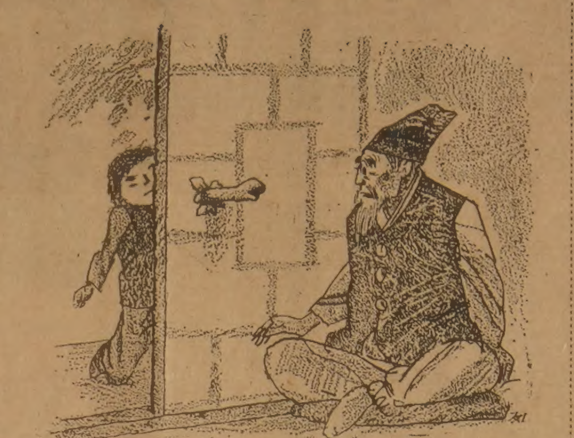


그림 鄭駿溶

母國語가 祖國愛측정 기준의 전부일수는 없어

오성대감의 일화가운데 이런것이 기억난다. 소년 이항복하고 이웃집 노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항복네 감나무의 가지일부가 자기집 울안으로 넘어오자 노인은 그것이 자기소유라고 우기면서 감을 멋대로 따먹는다. 이에 화가난 이항복은 이웃집으로 뛰어가서 노인이 들어있는 방의 창호지를 푹쑤시며 팔을 안으로 쑥 밀어넣는다.

『이팔이 누구것입니까?』

전에 서울에서 젊은 재일동포 연극인을 만난적이 있다. 보고 듣고 냄새맡는 모든것들에 감격해서 새삼스레 조국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되새기는 그의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우리말에 너무 서툴렀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말부터 배우라고 그에게 점잖게 충고했다. 그는 대뜸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잘알았다고 대답했다.

오오사까에서 아르바이트로 렌트카를 운전하는 재일동포 대학생을 만났다. 그는 고맙다는 인사 이외의 다른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참을만했으나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을때 그가 김치찌개도 모른는걸 보고 나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후 주로 나라와 교오또에서 머물며 틈틈이 전철로 30여분 거리인 오오사까로 외출을 나갔다. 나는 한국식당과 제주도출신 한국인의 가게들이 밀집해있는 쓰루하시(鶴橋)의 시장거리, 그리고 재일동포들이 많이 모여사는 이쿠노쿠(生野區)를 돌아다니며 나름대로 그 실태를 취재했다. 내가 가진 재일동포관이란 것이 얼마나 탁상공론에 가까운 안이한 것이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인가를 알게된것은 재일동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생활을 낱낱이 살피고난 다음이었다.

교포 2세와 3세들로 이루어진 윤강인(尹康仁)씨 일가는 전남강진이 원고향이다. 윤씨 내외는 모국어를 듣기는 해도 말하기는 서툴다. 3남1녀의 아이들은 듣기는 말하기도 모두 서툴다. 그러나 윤씨 일가는 자기네가 한국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조국의 힘도 거류국의 도움도 기대할 수없는 적막한 처지에서 맨주먹 하나로 어렵게든 환경에 적응해 가며 뿌리를박으려고 안간힘을 쏘다 보니 어느덧 모국어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다.

윤씨는 자그만 철공소를 손수 운영하고 있다. 부인 역시 공장에 나가 일을 해서 가계를 돕는다. 부부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이젠 그럭저럭 의식주를 해결할 만큼 생활이 펴이었다. 그들 부부는 먹고사는 일에 급급하느라고 자신들이 이루지못한 꿈을 온통 자식들한테 걸고 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을 모국의 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중학교 졸업반인 둘째는 수영을 잘해서 각종 대회의 우승 트로피를 휩쓴다. 녀석을 잘 키워서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시키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막내아들은 중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약중이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외동딸을 곱게 키우려는 욕심으로 윤씨는 무리인줄 알면서도 피아노를 구입해서 레슨을 시키는중이다.

워낙 교포들의 집단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윤씨일가는 일본인들로부터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세금을 내고도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다거나, 집을 마련할때 일본인이면 35년만기의 장기저리융자를받는 반면, 한국인은 7년짜리 밖에 못받는다거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구할수 없다거나 하는 따위다. 그래서 재능있는 한국인들이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스포츠나 예능방면에 눈을 돌리게 된다. 윤씨의 아들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교오또에 사는 김재도씨(金在道)는 경남마산이 원고향이다. 교포2세에서 4세까지 3대가 한집안에서 생활하는 김씨일가는 앞의 윤씨네하고는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김씨네는 젊은 [illegible]도 사투리의 모국어에 아주 익숙하다. 외따로일본인들 틈바귀에 끼여 살면서도 대문에 당당하게 붙인 한국식 문패가 무척 인상적이다. 김씨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자신의 학력을 떳떳이 밝힌다. 그는 만고풍상을 겪은 끝에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교포사회의 유지로 활동한다.

젊은 김씨는 건축업을 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대학에서 원래 그가 공부한 것은 저널리즘이지만 일본에서는 자기전공을 살릴 수가 없어 엉뚱한 방향으로 전업을 했다. 대단한 미남자인 그는 연세대 어학당에서 모국어를 배우다가 같은 목적으로 유학온 동기생인 교포 처녀를 만나 열애끝에 결혼했다. 젊은 부부는 딸이름을 가야(加倻)라고 지어 몸은 비록 일본에 있어도 근본은 한국인임을 어린것한테 일찌감치못박아 놓았다.

무척 대조적인 생활인데도 윤씨네나 김씨네나 다 나한테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말이란 물론 중요한 것이다. 모국어를 할줄 알고 못 하는 차이는 크다. 하지만 그것이 조국애를 측정하는 기준의 전부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며, 특히 우리 재일동포의 경우 그것은 본국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웃집 담 너머로 뻗친 감나무 가지는 그것이 감을주렁주렁 매달고 있거나 앙상한 모습의 벌거숭이로 있거나간에 우리 감나무의 한 부분인것만은 분명하다. 온갖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노력은 어디서나 다 고귀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한때나마 내가 괘씸하게 여겼던 재일동포 연극인과 고한생한테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재일 한국인들의 존재가 일본인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말을 동경대학 법학과 여학생으로 부터 듣고 나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같은 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는 유학생 김응렬(金應烈)씨가 그들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 오게됐으며 그간 일본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적있느냐고 따지자 그 여학생은 말문이 꽉 막혀 버렸다. 나는 혹 그와 같은 재일 한국인관을 통해서 일본의 젊은 이들이 한국 그 자체를 잘못 보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를 느꼈다.

이용하기에 따라서 나는 재일동포의 존재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거리를 좁히는 교량과도 같은 유익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그 귀중한 자산을 도외시한 채 그들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대해 나온 것 같다.

재일동포는 과연 물러가라고 확성기로 외쳐댈 만큼 일본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짐의 존재에 그치는 것인가?

메아리

連休

하느님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한가지는 엿새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7일째 하루 푹 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한다. 하느님이 한 일을 被造物인 인간이 감히 포폄한다는것은 무엄한 것이겠지만, 인간의 입장으로는 요즘 말로하면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 덕택으로 인간은 일요일을 가지게 되었다. 일요일이 없었으면 인간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인간의 역사는 얼마나 더디 발전했겠는가. 지구가 한해에 한바퀴씩 태양주위의 궤도를 돌듯 인간이 1주일에 하루씩 쉬는 생활의 리듬은 인류의 역사를 추진해온 활력이었다고 할수있다.

일요일은 물론 기독교의 敎義에서 나온것이지만, 이 安息日이 노동자들의 휴일이된것은 中世이후 부터라고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17세기중엽에 일요일준수법이생겨 노동자나 상인, 職人, 그밖에 누구든지 일요일이나 예수 受難日등 기독교의 大祭날에는 노동과 영업을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18세기후반산업혁명의 물결이 일면서 매일의 노동시간은 14~16시간으로 연장되어 휴일은 때때로 무시되었다. 그러자 각국의 勞動法들은 표준노동시간과 週休制의 확립을 위해 애를 썼고 그 例가 1833년에 나온 영국의 工場法이다. 8시간노동제의 국제적 규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족하면서 제도화되고 ILO가 週休制를 최초로 정한것은 1921년의 14號條約(週休條約)이었다.

週休制는 생산이 기계화됨에 따라 勞動強度가 높아지고 획일화되어 피로도가 획일화되므로 노동자의 능률을 최고로 발휘하자면 휴일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산업의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勞動強度가 높아질수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일을 늘릴 필요성이 많아져 歐美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週2日 休日制를 실시하여 토요일까지 쉬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현재의 週40시간에서 점차 35시간으로 단축해가는 중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이휴일도 모자라서 連休制를 채택하고 있다.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까지 쉬어서 토·일요일까지 연 4일을 놀아 버린다. 그리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 하루 더 쉰다. 하루 건너 뛰어 連休로 하는 것을 프랑스어로는 「퐁」이라 부른다. 다리(橋)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이번에 처음으로 퐁制가 실시될는지 모른다는 소식이다. 다가오는 추석(10월1일)이 금요일인데 국군의날과 겹치고 10월3일 일요일이 개천절이니까 토요일인 10월 2일을 휴일로 정해 3일 연휴를 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正初연휴말고는 연휴가 귀하다. 우연히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기를 기다리기란 입벌리고 감떨어지기 기다리기다. 우리나라에서 週2日休日制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하더라도 가끔은 連休가 있어주는것이 좋다.

반드시 긴휴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휴일이 生活의 句讀點이라면 連休는 休止符라 할수있다. 休止符없는 생활은 休止符없는 문장처럼 호흡이 가빠진다.

생활을 하다보면 時間의 沈澱物이 생긴다. 그날 그날의 생활에 쫓겨 일요일 하루가지고는 정리할수 없는 일들이 퇴적한다. 미루어온 많은숙제들을 一掃할 과외시간이 필요하다. 賃金에는 보너스가있다. 월급에보태 쪼개주지않고 따로 보너스를 주는것은 과외돈이 드는데 쓰라는 말이다. 連休는 시간의 보너스다.

특히 추석의경우는 어차피 그많은 歸省客들이 그이튿날 직장에 돌아오지 못한다. 추석連休는 이 缺勤의 현실화다.

바다의 물결은 靜止하기 위해 출렁인다. 사람은 쉬기위해 일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도마에 오를「홍콩」

대처訪中맞아 관심끄는 「15년후 장래」

中共、5개방침·홍콩小組 구성

홍콩은 과연 중공에 다시 돌려질 것인가.

앞으로 15년후인 1997년6월30일로 조차기간이 만료되는 홍콩의 장래문제가 오는22일과 26일로 예정된 대처英수상의 중공및 홍콩방문을 앞두고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의 장래에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에 비롯된것은 아니다.

영국정부가 1898년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99년간租借했으니 어차피 1997년 6월30일이면 좋으나 싫으나 중국측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때「집한채도 세울수없는 不毛의 땅」이라고 불려졌다가 지금은 동남아최대의 자유무역항이며 금융중심지로 성장한 홍콩이 중공측에 반환된다면 과연 지금과같은 경제·사회체제를 유지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콩주민들및 세계각국은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즉 중공의 사회주의체제와 홍콩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조화될수있는가하는 의문이다.

1997년 중공측에 반환되는 홍콩은 엄격히 말하면 九龍반도 북쪽의 소위 新界地와 2백35개의 부속도서다. 九龍반도 남쪽의 홍콩섬은 1842년 아편전쟁후에 체결된 南京조약에 의해 영국에「割讓」되었으며 九龍반도는 1860년 北京조약에의해 영국이「영구조차」했으며 新界地는 1899년 7월1일 99년조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新界地는 홍콩전체면적의 90%가량을 차지하고있는 지역으로 이것이 반환된다면 홍콩전체가 반환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15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외국투자가들이 몸을 사리고 눈치를 살피는등 불안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특히 조차만료기간 15년을 정확히 남긴 지난7월1일이후부터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대부분의 금전거래나 부동산거래등 재정활동이 15년만기로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기업들도 특히 新界地엔 투자를중지하고 있으며 홍콩달러가치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地價下落은 물론,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도 30%이상 떨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의하면 홍콩주민 95%가 홍콩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21%는 만일 홍콩이 중공에 반환될경우 무슨수단을 쓰더라도 국외로 도피하겠다고 밝혔다고한다.

중공측으로서는 외환수입의 40%인 8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중공자체의투자로 20억달러나 잠겨있는홍콩의 장래가 침체되기를바라고 있지는 않다.

홍콩의 장래에대한 외국투자가및 홍콩주민들의 불안은 결국 홍콩경제를 침체시키고 나아가 중공경제에도 타격을 줄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공은 홍콩접경의 深圳경제특구와같이 홍콩을 일종의「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 현재의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갈것이라고 밝힌바있다.

금년내에 개최될것으로 예측되고있는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5차전체회의에서 확정될것으로 보이는 중공의 신헌법초안제30조는「국가는 필요할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해야하며 이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할 제도는 국제적상황에 따라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특별행정구문제가 홍콩의 장래문제에관한 중공측의 자세를 보여주는것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특별행정구란 즉 대만, 홍콩, 마카오등 중공영토에 대해 잠정적으로 현경제 사회체제를 존속시키면서 중공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대만을 겨냥하고있는 것이지만 현실성으로 보아 15년후 반환될 홍콩이 시범케이스가 될것이 분명하다.

홍콩의 일간지 快報보도에 의하면 아직 중공당국이 공식발표는 하지않았지만 이미 지난3월에 국무원내에「홍콩의 장래문제를전담하는「홍콩문제中心小組」가구성되었다.

姬鵬飛국무원고문과 廖承志全人代부위원장을 머리로하여 黨중앙서기처및 조직부、국무원의 홍콩·마카오 관공청등의 멤버가 참여하는 이「홍콩문제 中心小組」는 지난 3개월여동안 홍콩의 각계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는 비공산계인사들도 北京에 초청, 홍콩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社會·資本체제 共存유력

外國투자가들 벌써부터 몸사리며 눈치

한편 홍콩의 유력월간지 爭鳴은 최근호에서 중공지도층이 이미 홍콩문제를 처리하기위한 5가지방침을 세워놓았다고 보도하고있다.

胡耀邦총서기가 한 중요회의석상에서 밝혔다는 이 5가지방침은 ①홍콩·마카오는 중국영토이며 중공은 이들에대해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 중공은 과거 영국·포르투갈과 맺었던 불평등조약의 합법성을 인정할수 없다 ②홍콩·마카오에 대한 중공의 주권회복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③「1個國家 兩種制度」의 방식으로 홍콩·마카오의 주권문제를 해결한다④홍콩의 현행제도는 변화시키지 않으며 홍콩·마카오가 계속 자본주의체제를 가지는것을 허용한다 ⑤홍콩은 계속 자유무역항으로 존속한다는 것등이다.

이 5개방침은 현실적으로 중공이 취할수있는 가장 이상적인 홍콩문제처리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2가지제도를 허용한다는「1個國家 兩種制度」의 방식은 신헌법 30조가 규정한 특별행정구 창설과 관련, 획기적이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것일수있다.

한편 영국으로서는 홍콩을 돌려받겠다는 중공측의 요구를 거절할수는 없는것이지만 경제중심지로서 홍콩의 중요성을 앞세워 비록 홍콩이 중공의 주권하에 들어가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보전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려할것은 말할것도 없다.

아직까지 영국이나 중공 어느쪽에서도 홍콩의 장래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 바는 없으나 대처수상의 訪中으로 홍콩문제를 가운데 놓고 첫 대좌하게되는 양국정상회담에서 어떤 처리방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朴永喆기자】

그레이스王妃 急逝 수상

모나코국민들、王室처리태도에 많은疑問

重態사실 처음에 왜 숨겼나
2重 브레이크 破裂도 이상
事故車의 조사도 허용 안해

【몬테카를로UPI聯合=特約】 그레이스·켈리왕비의 죽음을가져온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모나코왕실의 태도는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지중해연안 여러도시사람들이 널리 품고있는 의문점은 대체로 아래와같이 요약된다.

▲왜 그레이스·켈리왕비의 중태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발표되지 않았는가.

▲누가 사고가 난 차를 운전했었는가. ▲차체에 기술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왜왕실당국은 전문가로하여금 사고차를 조사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문점은 그레이스·켈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제기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켈리의 사망 한시간전까지만해도 왕실대변인은 왕비가 의식을 잃지않았으며 단지 대퇴골골절상과 갈비뼈및 쇄골골절상을 입었을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보도는 사고를 낸 영국제 로버3500승용차가 왜 왕실관리에 의해 사고장소인 라·튜르비로 부터 모나코로 급히 옮겨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라·튜르비는 프랑스와 모나코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지형이 험준한곳이다.

왕실대변인은 이의문에 대해 입을 다물고있다. 한편 경찰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사고차의 위치이동으로인해 지장을 받고있다고 밝히고있다.

또 사고차를 그레이스왕비가운전하고있었고 사고원인은 브레이크파열이란는 왕실발표도 선뜻 믿어지지가 않는다.

신문들은 운전석에 스테파니공주가 앉아있었다고 보도하고있다.

하지만 금년나이 17세인스테파니공주는 나이가 어려면허증을 가질수 없다. 모나코에서는 18세가 되어야 운전면허를 딸자격이 생긴다.

신문보도들은 사고직후 스테파니공주를 운전대뒤의 차체 왼쪽에서 끌어내었다고보도해 운전자가 스테파니공주일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신문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또 프랑스 경찰당국은 사고가난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도로위에서 아무런 타이어자국도 발견할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발표는 사고가 브레이크 파열때문이라고 한 왕궁발표에 더 의문을던져준다.

한편 사고차종인 로버3500 제조회사인 영국의 레이랜드회사는 이차가 사고에 대비해 2중 브레이크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레이랜드회사 소속의 두자동차전문기사가 사고차를 조사하기위해 모나코왕실에 허락을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

최근 그레이스왕비가 부군 레이니에公과 심각한 불화에 빠져 거의 別居상태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도 이러한 추측을 자아내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棺에 안치된 그레이스王妃

교통사고로 14일 사망한 모나코 그레이스 왕비의 시신이 단정스레 관에 담긴채 15일 모나코궁 필라티나예배당안에 안치됐다. 당국은 일반인들이 고인의 잠든 모습을 볼수있도록 궁정출입을 허가했다. 【모나코15日AP電話=聯合】

遺骸 王室교회安置

○…자동차 추락사고로 14일 사망한 그레이스 모나코 왕비의 유해가 일반 조문객들을위해 15일 뚜껑을덮지않은 관에 입관되어 왕궁교회에 안치됐다.

그레이스왕비의 유해는 이날 새벽 병원으로부터 모나코왕실의 그리발디宮으로 옮겨져 그녀가 부군 레이니에公과 매일 예배를 봤던 팔라틴교회안에 안치됐으며 레이니에公의 지시에 따라 팔라틴교회는 2만6천명의 모나코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이에따라 왕궁주변에는 수많은애도객들이 모여들기시작했으며 거리 곳곳에는 반기가 게양됐다.

장례식 18일거행

○…그레이스·켈리 왕비장례식은지중해와몬테카를로를 굽어볼수있는 모나코성당에서 오는18일11시 거행되며유해는 성당구내 그리발디家선조들옆에 나란히 묻힐것으로 알려졌다.

5백여명의 조문객이 참석할 이장례식의 초청자는 아직 공식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그레이스·켈리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화환이 모나코宮에 너무나 밀려들고 있어 왕실대변인은 긴급TV방송을 통해 화환을 모나코宮에 보내지 말고 왕비가 생전에 봉사했던 자선단체에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했다.

公主도 重傷입어

○…사망한 그레이스 모나코왕비(52)와 사고당시 승용차에 동승했던 스테파니공주(17)는 앞서 알려진것보다 훨씬 중상을 입었으며 운전도 그녀가 했는지 모른다는추측이 15일 이곳에서강력히 나돌고있다. 【몬테카를로(모나코)=外誌종합】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황용현 286−154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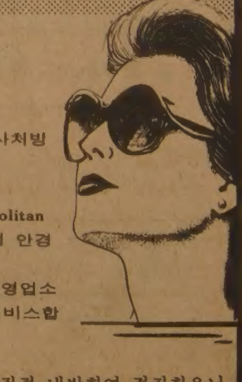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과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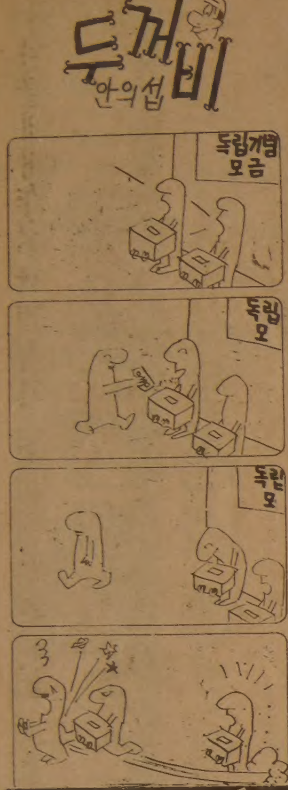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택시運轉士월급 28萬원

합승단속 때맞춰 勞使협의후 確定

서울市、10월부터 施行키로

서울시내의택시운전사 월급액이 월28만1천3백원으로 확정、10월부터 월급제가 실시된다。

이월급액수는 월납품 95만2천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전제로한 것인데 합승단속이 틀을 앞둔 16일하오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확정됐다。

전체 2백61개 택시회사가운데 이날하오5시 현재80여개사가 이같이 합의했는데 나머지회사들도 금명간 이선에서 타결될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사의 월급은 월14일 근무기준으로 일일사납금(6만8천원선) 제도를 폐지하는대신 월납금제를도입、이를 기준으로 성과급5만6천원을 지급하며 사납금실적에따라 이를 가감키로한것。

서울시는 나머지 회사들도 18일 이전에 노사합의를끝내도록 종용할 방침이다。

이번월급액은 기본급 6만7천4백80원、상여금 2만4천1백원、성과급5만6천원、주월차수당 2만4천1백원、야간 연장근로수당 10만9천6백20원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측이요구한 32만원보다 3만8천7백원이 적은액수이다。

그런데 이월급액은 ▲성과급을 전제로 했고▲연2백%의 보너스를 분할산입、사실상 월급제가 아닌데다 노조의 집합체인 서울택시노조협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울시 종용에따라 개별합의된 것이어서 협의회측이 이번합의에응한 노조에대해 징계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주목되고 있다。

쇠고기내장먹고 夫婦숨져

전남長城…두자녀는 重態

【光州】 시장에서 사온 쇠고기내장을 먹은 일가족4명중 부부는 숨지고 남매는 중태에빠진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지난14일 하오3시께 전남長城郡東北面月山里420崔正鎬씨(41)와 부인 金良禮여인(36) 4녀 京玉양(6) 장남 相煥군(4)등 4명이 崔씨가 長城郡黃龍面시장에서 사온 소내장1근반중 일부를 날것으로 먹고 나머지는볶아먹은후 모두가 심한 복통을일으켜 崔씨는 15일새벽1시께、부인 金여인은 하오5시께 각각 숨지고 남매는 光州 전남의대부속병원에서 응급치료중이나 중태다。【聯】

中釜山전화국에 불

【釜山】 16일상오11시께 부산시中區中央洞 중부산 전신전화국에서 불이나 中區中央洞일대 전화가 2시간30분동안 불통됐다。

이날불은 발화20분만인 11시20분께 진화됐는데 이날불로 중부산 전신전화국내 2만6천회선중 1천8백회선이 진화작업중 사용된 물에 침수되는 바람에 관내 ㊺、㊻、462국 전화회선 일부가 2시간30분동안 불통됐다。【聯】

트럭에 2명 轢死

【順天】 15일하오2시30분께 전남승주군 서면 학구리 삼거리에서 놀던 이마을 文昌基씨(41)의 둘째아들 洪哲군(6)과 尹相元군(6)등 2명이 무면허운전사가 몰던 전남7나2288호 트럭(운전사 柳奉相·45)에 치여그자리에서 숨졌다。【聯】

탈영병 銃亂射

M16으로 2명죽고 6명다쳐…自首

【仁川=崔成基기자】 육군모부대 탈영병 金成謙하사(20)가 16일새벽0시30분께 仁川東區松林2洞105 무지개살롱(주인 朴상규·28)에 침입、M16소총 10여발을 난사하는 바람에 손님 金일신씨(33·仁川 北區富平洞277)와 종업원 李주자양(21)이숨지고 자수를 권유하러왔던어머니 李九任씨(43·仁川市南區道禾3洞16) 등 6명도 중상을 입었다。

金하사는 중상을 입은 손님과 종업원등 4명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5시간만인 이날 상오6시15분께 자수했다。

金하사는 이날 술이 만취된채 살롱에 들어와 손님2명、여자종업원 3명등 6명을 한쪽방으로 몰아넣고 옷을 벗긴뒤 술을 가져오라며 난동을 부리다 종업원 노윤희양(23)이 도망치려 하자 총기를 난사、두사람을 숨지게 하고 손님 崔永植씨(28·仁川제철직원)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당시 무지개살롱안에는 주인 朴씨와 종업원7명、손님 2명등 모두 10명이 있었는데 金하사가 술에 취해 총기를 들고 살롱에 들어서며 고함을 지르자 여종업원 4명은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金하사는 지난 80년4월부터 水原梅山洞1街49에 거주하는 金성희양(22)과 교제하면서 1년간이나 仁川南區道禾3洞16에서 동거해 왔는데 동성동본이라는이유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 헤어졌다가 지난 7월께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했으나 결혼할수 없는 것을 비관해왔다는것。金하사는 사건전날인 15일하오 부대에서 M16한정과 탄창3개를 갖고 탈영한뒤富平에서 택시를타고 仁川으로와 올림포스호텔등지를 돌아다니며 술을마시고 무지개살롱에 들어가 난동을부렸다。

바다밑 新羅鐘탐사 착수

어제부터…大王岩주변서

【慶州=金薰기자】 경주月城郡陽北面 신라문무왕수장릉(일명 대왕암)주변 바다밑에 묻혀있는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종을 찾기위한 탐사작업이 16일 착수되었다。

이종은 문무왕수장릉에서약 1㎞떨어진 感恩寺(신문왕2년 682년건립)에 걸려있던 대형동종으로 왜구에의해 약탈당한것으로 지난80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본전역에는 이 종에 대한 자취나 기록은 없고 月城郡 해안지방주민들 사이에는 왜구가 이종을싣고 일본으로가던중 문무왕 수중릉 앞바다에서 풍랑을만나 배가 뒤집히면서 물속에 빠뜨렸고 그후 이 종이 풍랑치는 날에는 왜구의 내습을 경계하며 울음을 울어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있다。

이종이 발견되면 에밀레종보다 오래된 국내 최고의 종으로、對日호국정신의 상징이 된것으로 문화재당국은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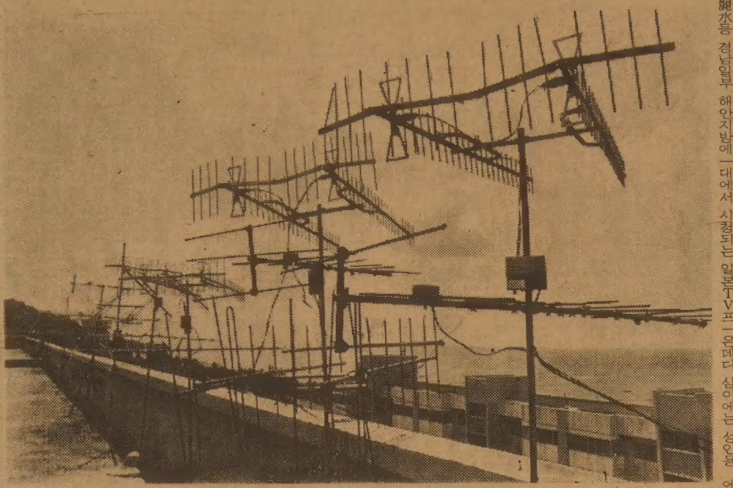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반지
목거리、팔지、목거리
B536-1692
H245-3539

잔인한 武士劇·저질 愛情物

日 TV公害 심각하다

釜山등 南海岸…청소년情緖 해쳐

국내出力강화·妨害전파방안 對策시급



◇부산海雲臺 바닷가 아파트 옥상에 즐비하게 들어선 ㄷ자형 특수안테나들。이 안테나를 통해 바다건너 對馬島에서 쏘아대는 일본 TV전파가 쏟아져 들어오고있다。【海雲臺=崔東完기자】

【釜山이동욱자부=金薰기자】 부산을 비롯한 馬山、昌原、麗水등 경남일부 해안지방에 일본TV전파가 침범、안방문화를 좀먹고있다。이곳 일대에서 시청되는 일본TV프로중에는 잔인한장면이 많은 무사극、저질애정물들이 많은데다 심야에는 성인용 에러물까지 등장한다。

이같은 프로의 내용은물론 우리나라의 방송윤리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기도하지만 이지역 청소년들의 호기심을자극、정서교육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본이 對馬島에 고성능 중계탑을 세우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에 컬러TV가 방영되면서 부터는 시청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볼때 문제가간단치가않다。

이에 대해 방송전문가들은 강력한 방해전파를 발송하거나 국내 TV의 방영시간을 늘이고 프로를 다양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TV전파가 침범하고 있는 지역은 金井山、白陽山、金湧山등 산악지방을 제외한 부산의 전지역으로 특수안테나만 장치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南區、海雲臺區등의 남쪽 해안지방은 그나마 특수장치를하지않아도 가능한지역이 있고 馬山、昌原、麗水등 해안도시에서도 특수장치만하면 일본TV전파가 쉽게잡힌다。

부산지방 방송실무자에 따르면 국내TV전파는 수평파이고 일본에서오는 전파는수직파여서 ㄷ자형 안테나의소자(안테나 프레임에 촘촘히붙은 작은알루미늄대)를 수직으로세우고 이수직소자에 포착되는 전파를 증폭시키면 일본TV시청이 가능하다는것。

최근 부산 경상전문대학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부산지역에는 일본TV전파를 수신할수있는 특수안테나가 모두1만여대가 가설돼있다는것。

이대학의 조사는 이같은특수안테나는 비교적 국내방송난시청지역이 많은 南區지역이 2천5백여개로 가장많았고 상가밀집지구인 中區지역이 2천60여개로 두번째라고 밝히고있다。

이대학의 한관계자는 한때 일본TV 수신안테나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기도했으나 별실효를 거두지못해 컬러TV시대와함께 더욱 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 일본 TV는 채널7로 NHK、채널11로NBC、채널5로는 일본 UHF방송이 잡힌다。7번과 11번채널은 국내TV가 일본TV채널과 맞서있기때문에 국내TV가 방영되고 있는 시간에는 일본 NHK나 NBC는 시청할수없도록 되어있다。그러나 국내방송의 출력이약해 TV화면에 국내방송이 나오다가도 화면이 밀려나가면서 같은 채널의 일본TV화면으로 바뀌는 경우가 흔히있고 날씨가 흐린날이면 더욱 심하다는것。

그러나 국내방송이없는 아침10시~하오5시30분(평일) 사이나 심야시간대에는 국내TV채널을 통해서도 일본TV시청이 가능하다。

또 5번채널은 일본전파에 맞설 국내전파가없다。한 방송실무자는 『일본TV전파를 막기위해 국내방송이없는 낮시간에는 컬러자막을 내보내고있으나 저쪽의 출력이강해 밀리는 지역이있다』고 밝혔다。

이방송실무자는『경남해안지방에서 잡히는 일본TV의 프로내용이 한국민을 의식하고 제작된것이라고 말할수는 없으나、우리나라의 국익에 해로운 내용의 뉴스물들을보내는경우가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한국과가까운 대마도에다도 이높은 TV송신탑을 세운것부터가 자국민의 시청만을위한 의도로보기는 어렵다는지적。

또 일본민간TV방송인 NBC가 방영하는 일본자제품등 CM물도 경남해안지역의 우리국민들의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수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경상전문대의 한교수는 일본TV를 시청하는 연령층은 주로일본어를 해독할수 있는 고령층이지만 점차 젊은이들도 늘어나고있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미국계통을 더빙한 프로를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친구간인과의 정사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등 국내의 방송윤리규정에도 명백히 위반되며 청소년정서등 국민정신에도 해독을끼치는 내용도많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경남해안지방에서 일본TV전파를 막기위해서는 ▲국내TV중계소를 곳곳에 세워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국내TV프로의 질을높여야하며 ▲일본TV전파와 맞서기위해 출력을 강화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不純層 탄광추방"

北韓탈출 李현주君 참담한 住民생활 폭로

◇李현주군

지난 8월19일 북한을탈출해온 李현주군(19·황해남도 배천군봉양리 제4구작업반 협동농장원)이 16일상오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한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괴의 전쟁준비등을 낱낱이 폭로했다。

李군은 이날 회견장에 찾아온 큰삼촌 李雲鶴씨(58·忠南保寧郡珠山面籠界里)와 작은삼촌 李雲翼씨(42·충남扶餘郡玉山面加德里)를 상봉、뜻밖에 자유대한에서 혈육을만난 감격과 기쁨을함께 맛보았다。

李군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상황과 귀순동기는。

▲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에서 이천운씨(62)의 4형제중 3남으로 출생、5년제 봉양고등중학을 졸업했다。아버지가 남한출신이란 이유로 입대도、입당도 못하는차별대우를 받으며 채탄공·농장원으로 전전하다 굶주림에 지쳐 자살기도를 한끝에 월남을 결행했다。

―북한주민의 최근생활은。

▲金正日은 지난 6월부터 「속도창조운동」이란것을주창、요란법석을 떨고있다。퇴비증산、풀베기까지도속도창조운동에 연결、주민을혹사하면서 『이길만이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앞당기는길』이라고 선전하고있다。

―북한 탄광노동자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내가 있던 흑룡탄광에는 2천7백명의 노동자중 대부분이 平壤에 살다가 정치범이나 불순계층으로몰려 쫓겨온 사람들이었다。

―북괴치하의 청소년생활은。

▲북한의 청소년들로 조직된 붉은청년근위대는 인민군과 똑같은 전쟁훈련을 받으며 최근에는 모형비행기격추훈련등을 집중적으로 하고있다。북괴간부들은 청소년돌위대원들에게 『장차 전쟁이 일어나면 경보병부대와 항공육전대가 남한후방에 신속히 침투되기때문에 1주일이면 끝난다』고 말하고있다。

각급학교는 金日成사상에 성적이 나쁜학생은 졸업시키지않는다。북괴는 또 어릴때부터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인민학교의 산수시간에도 『미국놈이 10명있는데 수류탄을던져 7명이 죽였다。몇명이 남았느냐』는식의 문제를낸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지역에관해 들은바가 있는가。

▲협동농장의 간부나 당세포비서들은 이따금 『이새끼 독재대상구역에 가야겠어』하고 다그친다。

이독재대상구역이란것이바로 정치범들을 잡아가두는수용소지역이다。

군대에 갔다온 선배들한테서도 『북쪽산간지대에 있는 독재대상구역에는 金日成부자 족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갇혀있다』고들었다。

나의 외삼촌한명도 과거남한치안대에 가담한사실이 탄로나서 이수용소에 끌려가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바있다。

韓·李 신병인도 要請

외무부、駐韓美大使館 총영사에

외무부는 16일 법무부측과의 협의에따라 애정행각소동을 벌인 韓昇熙씨와 李俞政양의 신병인도를 미국측에요청했다。

宋學源영사 교민국장은 이날 켈러 駐韓美총영사를만나 이들 2명이 여권법및 출입국 관리법등을위반、불법 출국한사실을 통보하고 이들의신병을 돌려줄것을 요청했다。

旅券변조조직 수사

한편 韓昇熙씨와 李俞政양의 불법여권출국경위를 조사하고있는 서울西部경찰서는 16일 韓씨에게 여권을 판 李澈씨(52)는 여권변조전문가、姜仁燮씨(27)는 여권을 수집해 李씨에게 넘겨주는 수집책인것으로보고 이들이 관련된 여권변조전문조직에대한 수사를 펴고있다。

5선뉴스

◆山蔘한줄기에 세뿌리

【順天】 전남昇州郡月燈面桂月里 上洞마을 朴采基씨(45)등 주민 3명은 지난14일 하오 산다래를 따기위해 求禮군과 전북南原군간의 경계지점에 있는 해발1천4백m의 노고산 골짜기를 헤매던중 무게가 75g이나되며 한줄기에 뿌리가 3개나달려있는 약4백년된 것으로보이는 산삼을 캤다。【聯】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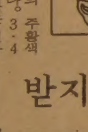
地下鐵안전담당관 徐茂田씨

칭찬도 달게 받지못하는 「勞心焦思」

「지하철공사관계자들은「지하철얘기」가 나오는것을 싫어한다。못한다는 비난은 물론 잘한다는 칭찬도 나중일을 모르므로 달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그래서 서울시 지하철안전담당관 徐茂田씨(43·사진)를 『매스컴에 태우는일』은 도대체가 힘이 들었다。

현장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를 스쳐만나다가 좀 길게 얘기하려고 世宗문화회관별관 3층으로 찾아갔을때는 때마침 복도에 왁스칠을해 마를때까지 기다려야 했다。인터뷰가 어려울 조짐이었다。

그의방 벽에는 빙둘러 2·3·4호선 건설현황도가 붙어있고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도면의 주황색이 그를 불안케하는듯했다。3·4호선엔 「공사완료」를 뜻하는 연두색이적어 더 그런지도 모른다。



西小門사고직후인 지난 7월3일부터 3개노선별로 3명씩 반씩순회점검을 해온 이책임자에게는 지난70여일이 무척 길었을것이다。황량하게 큰방의소파에서 아침잠을자는등 집에 못들어간 날이 허다하고 비가오면 더 걱정이었다고한다。어떻게 노심초사해왔는지는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하지않아 짐작할뿐이다。시담장은 살금살금 취재해 들어가자 『신문에 내는겁니까。공무원이 할일을 하는것뿐입니다』하면서 좀 퉁명스러워졌다。현장을 모르는 교수들의 말만을 인용하는 신문에대한 불만도 섞였다。그리고 현장의안전관리가 섭에안차 다투기도한다는것。요즘은 말이 잘먹힌다는것。같은구간이라도 굴착위치와 깊이·공법에따라 안전문제가 늘생긴다는것등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만했다。

「안전관리실」이라는 방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완공된후 얘기하자고 입을 다물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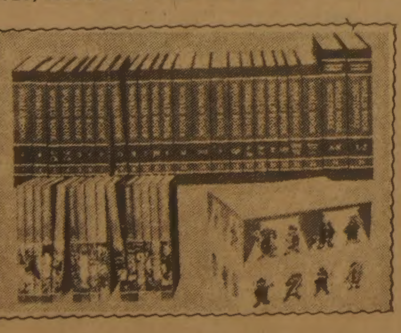
서울시 16년째인 그는 건설부3년동안 水原—烏致院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도 일했고 최근까지는 서울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의 토목시험소장으로 근무했다。

사진기자가 들어온뒤부터는 무엇을 물어도 『모른다』고 웃어넘겼다。집은 江南이지만 그이상 모르겠고、자녀수도 잘모르겠고…『가겠다』고하니 1층현관까지 따라내려왔다。그리고 그는 악수를 청하면서『기사를 취소해주세요』라고 말했다。『모른다』는 말만했는데 무엇을 취소해달라는 얘긴지 「모르겠다」。【任皓淳기자】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쾌조의 3連勝

세계女배구 E조서首位
브라질連破 준결리그에

【아르키파(메루)=聯】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쾌조의 3연승을 올려 예선E조수위로 준결승리그에 진출했다。

한국은 16일상오 이곳시립체육관에서 벌어진 예선3차전에서 강적 브라질을3-1로제압, 3전전승을거뒀고브라질은 2승1패, E조2위로 준결승리그에 올랐다。

프레대회(브라질)에서의 패배를 깨끗이 설욕한 한국은 이날 李恩敬、金貞順、金英淑、朴美姬、鄭粲仙、李榮宣을 스타팅멤버로 기용했으나 브라질의 장신 헬레나(185㎝) 이사벨(183㎝)의 좌우공격과 블로킹에 고전、13-13까지 시소를 벌였다。

그러나 이 판치에서 한국은 李榮宣의 왼쪽 강스파이크가 내리꽂혀 리드를잡고 중앙속공으로 맹위를떨친 朴美姬가 브라질 이사벨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떨어뜨려 15-13으로 신승했다。

2세트에서 한국은 李恩敬·金英淑의 이동속공과 朴美姬·金貞順의 중앙 콤비속공이 호조를보여 12-7로달아났으나 잇달은 범실6개로 어처구니없게 13-15로 역전패했다。

제3세트에서 한국은 朴美姬의 중앙속공과 블로킹이 맹위를 떨치고 李恩敬의 왼쪽강연타가 가세돼 15-12로 끊었다。

승부를 가름한 4세트에서 한국은 朴美姬의 중앙속공이 신들린듯 작렬했고 李恩敬·李榮宣의 좌우보조공격이 불을뿜어 일방적인 리드를 잡은끝에 게임을 포기한 브라질의 추격을 15-3으로 일축했다。

▲田好寬감독=브라질의프레대회에서는 심판의 불공평한 판정과 좌우 정면 공격실패등으로 3-2로 분패했었다。그러나 이번에는 속공작전으로 장신 브라질의 수비를 흔든것이 주효했다。최소한 4강진출은 무난할것같다。

◇전 적

▲제3차전

한국 3	15	15	13	15	1	브라질
	3	12	15	13		

서독 3-0 파라과이

▲E조종합순위=①한국3승②브라질2승1패③서독1승2패④파라과이3패

해설
12팀 W·X組리그로 4팀올라
한국 W조 日이强敵、페루伏兵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리그에 오른 팀은 예선조 1·2위의 12팀。이 가운데 예선A·C·E를 통과한 6팀은 W조로、B·D·F를 통과한 6팀은 X조로 다시 편성된다。이들 6개팀들은 예선서 맞붙은 팀과는 다시 대전하지 않고 나머지 팀들끼리만 리그전을 갖게된다。

W조의 1·2위와 X조의 1·2위는 선수권 1~4위 결정전에 나가게 되는데、W조 1위와 X조 2위、W조 2위와 X조 1위끼리 단판승부를 가져 이긴팀끼리는 1·2위 결정전을、패한팀들끼리는 3·4위전을 갖게된다。

한국은 브라질(이상E조)、日本·불가리아(이상A조)、페루·캐나다(이상C조)와 함께 준결승리그 W조에속하게 됐는데 여기서 최소한 2위까지 유지해야 4강에 오를수 있다。W조에서 한국의 최대강적은 日本이지만 페루도 결코 만만치않다。특히 페루는 홈팀인 관계로 심판배정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유리하다。또한 개최지가 고산지대인 점도 한국에게는 불리한요인이다。蘇聯여자대표팀도 지난74년 고산지대에적응치못해 페루에 패한바있다。

만약 한국이 전력면에서 수위의 日本과 홈팀 페루에 패하고 W조 3위를 차지할 경우 5~8위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清州機工·貞信女 첫판 장식
中高 핸드볼

제10회 체육부장관기쟁탈 전국남녀 중고핸드볼 대회가 16일 잠실종합체육관에서 개막、富川工高와 仁川體高、清州機工、貞信女高등이 첫 승리를 거두고 1승을 기록했다。이날 경기서 남고B조의 清州機工은 洪哲元、裵鍾益이 각각 7골씩 올리며 활약、義城工高를 30-25로 따돌렸으며 남고B조 경기서는 지난해 우승팀 富川工高가 能仁高와 접전끝에 27-24로 승리했다。남중경기서는 신장과 슈팅이 우세한 中和中이 발안中을 18-7로 눌러 1승을 올렸다。

▲남중A조 천호 20-11 영주
▲남중C조 중화 18-7 발안
▲여중A조 상인천 14-8 충북
▲남고B조 인천체 17-13 마포
부천공 27-24 능인
▲남고C조 청주기공 30-25 의성공
▲여고B조 정신 34-21 인천

아시아 태권도大會 12월 싱가포르확정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국 自由中國)은 제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오는12월10일부터 3일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최종확정했다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알려왔다。

당초에는 7월 홍콩에서개최예정이었으나 홍콩연맹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 싱가포르로 최종결정된 것이다。

이번 대회기간중에 열리는 아시아연맹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는데 한국은 태권도가 오는86년 서울아시안·게임종목으로 채택될것에대비해 4년임기의 회장직에출마할 방침이다。

나브라틸로바 1位 女프로테니스 順位

【런던遞=聯】지난11일 全美오픈테니스 선수권대회 여자단식에서 패권을차지한 美國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국제여자테니스 순위에서 1위인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를 1백30점차로 바짝추격하고있다。

프로야구
金奉淵 17號 홈런더비 1위
해태、10걸에 4명

홈런왕국 해태·타이거즈의 4번타자 金奉淵이 한국프로야구 홈런·레이스서 통산 17호를 날려 金準桓、白仁天을 제치고 홈런더비 수위로 올라섰다。

金奉淵은 16일 光州구장에서 벌어진 MBC·靑龍과의 경기 6회말 솔로·호머를 날려 장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해태는 이날 MBC에 6-4로 패배、11승18패로 5위에 머물고있다。

해태의 강타자들은 팀이 이기거나 말거나 일발장타를노려 이날 현재 홈런 10걸중에 1위 金奉淵、2위 金準桓(16개)、4위 金城漢(12개)、7위金一權(11개)등 4명이 들어있다。

◇16일전적

◆광주

MBC	031	010	001	6
해태	000	301	000	4

▲홈런=金奉淵(6회·해태)

◆청주

삼미	100	200	000	3
OB	000	003	01×	4

◇15일전적

◆광주

삼미	000	000	013	4
해태	015	000	13×	10

▲홈런=金鍾模(2회) 金奉淵(3회·3점) 林槇勉(3회·2점 이상 해태)

◆부산

OB	020	000	000	2
롯데	000	200	01×	3

▲홈런=金宇烈(1회·2점·OB) 金用熙(8회·롯데) 【聯】

◇후기 중간순위 <15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삼성	24	9	.727
②OB	22	9	.710
③MBC	18	14	.563
④롯데	15	14	.517
⑤해태	11	18	.379
⑥삼미	3	29	.094

近代5種聯 발족

근대5종및 바이어드론연맹이 16일 신집행부를 구성、정식으로 발족했다。

근대5종은 육상·수영·승마·사격·펜싱등 5개종목 경기기록을 점수로 환산、득점에의해 순위를 가리는 경기이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鄭在德회장(국제종합건설사장)은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선수들을 발굴하고 각급학교와 군부대에 팀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집행부 명단

▲회장=鄭在德 ▲부회장=金德永 呂英東 ▲이사=張大元 南宗憲 崔洛鎬 韓光洙 姜顯二 李泰根 崔貴异 韓成旭 金鎬演 金淸洞 金昌煥 朱銑億 ▲감사=方大永 魯得煥

九德에 電光점수판

【釜山】釜山의 九德야구장에도 대형 전광식 스코어보드가 등장했다。

15일밤 열린 프로야구 롯데·OB대전때 점등식을 갖고 첫선을보인 이 스코어보드는 지난7월20일부터 공사비 1억4천5백만원을 들여 완공한것。

길이 23.2m、높이 17.62m、폭3m인 이전광판은 서울運動場야구장의 것보다 작으나 지방에서는 가장큰것이며 선수·심판이름을비롯、15회까지 득점상황을 자세히 표시할수있다。【聯】

◇팔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로보트 팔。

◇하반신마비자가 조종간하나로 운전할수있는 자동차。

로보트時代 "밥도 먹여줍니다"
휴스턴서 障碍者보조기구 展示會
말로 命令하면 척척
집안 돌아다니며 잔심부름
하반신 완전마비자위한 自動車선뵈

컴퓨터에의한 고도의 산업기술발전은 한낱 꿈으로만 생각했던 자동로보트시대를 현실화시키는 단계에까지왔다。로보트의 산업이용은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실용화단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35만여명이 신체및 정신장애로고통을 받고있다。이들 장애자들은 음식을먹거나 전화다이얼을돌려 응답하는 간단한 일조차 남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신체장애자와 이들을 돌보는 가족사이에 감정적인 충돌이잦아 자살사건등으로 많은 희생자까지 생겨 심각한 사회문제로등장했다。

이때문에 과학자、기술자들과 의학자들사이에 최신 첨단과학기술을 이용、장애자들의 고통을덜어주기위한 연구가 급진전하고있다。

최근 텍사스州에있는 휴스턴의 갱생의학연구소에서는 장애자들을위한 많은 보조기구가 전시됐다。

이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것은 팔없는 사람을 위한 로보트팔이다。

캘리포니아에있는 팔로알토재향군인행정센터의 기술자들이 고안한 로보트팔은컴퓨터로 조종되며 사용할사람의 목소리까지 구별한다。

로보트팔을 사용할 장애자는 우선로보트팔에 시켜야할 일을 말로하여 기억시킨다。이렇게 한뒤 로보트팔은 장애자의 명령대로 척척 움직인다。예를들어 장애자가 식탁에 앉아『야채』하고 명령하면 야채를 포크로 찍어 장애자의 입앞으로 가져온다。그러나 이로보트팔은 사전에 기억시킨 말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해야만 한다。

팔로 알토의 연구팀도 이로보트를 이동식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계속하고있다。이계획에의하면 움직이는로보트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장치、사용자의 집안을 돌아다니며 잔심부름을 할수있게 한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장애자는 TV모니터를 보면서 로보트에육성으로 명령하면 로보트는서가에서 책을 꺼내오거나 냉장고의 음식을 가져오게 할수있다。이 연구소는 앞으로 5년내에 이로보트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다。

또 우주인들이 달표면위를 자동차로 달리던 기술을 이용、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위한 자동차가 개발되고있다。

캘리포니아州에 있는 벨존스우주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이자동차는 운전대、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를 장애자 오른쪽에있는 조종간 하나로 작동할수 있도록 되어있다。이조종간은 두개의 손가락으로 쉽게 작동할수있다。

또 미시간대학에서 개발한 다른 자동차는 장애자가 휠체어를 탄채 차에 오를 필요없이 기중기식 받침대를 이용、장애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겨 놓이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컴퓨터를 이용한 뇌성마비 어린이를위한 의사소통 기구도있다。

스탠퍼드대학 아동병원연구팀이 개발한 이기구는 여러가지 색깔로된 전반위에 여러가지 색깔로된 동물을 그려넣어 뇌성마비 어린이들이 전반을 눌러 나타나는 여러가지 동물의 모양을 보면서 환경 적응능력을 기를수 있다。

컴퓨터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이미 공장영역을 벗어나 가정에까지 파고들었으며 특히 모든 신체장애자들이 정상인과 같은 불편없는 생활을 할수있는 희망을 주고있다。과학자들은『우리는그들을 치료할수는 없으나 처한 환경을 극복케할수는 있다』고 장담하고있다。【申相頊기자】

일하며 생각하며

그토록 애써 간직해온 한글인데 在美동포들은 어쩐지…

『찬란히 빛나는 맑은 아침에／겨레의 사람안고 모이는 우리들／배우자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사람이 샘솟는 빛난 눈동자』

비록 남의 학교 강당에서지만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강당이 떠나 가라고 크게 교가를 부르는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교사로서 만가지 감회가 서린다。4주간 진행된 여름학교 마지막날—。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사히 여름학교를 끝낸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때보다도 건강하고 씩씩해 보인다。교실 칠판에 쓴 낙서도 처음엔 영어투성이었으나 이제는 그동안 배운 「ㄱ,ㄴ」에서부터 「아버지,어머니」 「여름이 왔읍니다」까지 다양한 (?) 우리 글이다。그 글자는 비뚤비뚤하고 서툴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랑스러움과 뽐내는 마음이 서려있는 것이다。

오늘은 그동안 심장수술로 인해 요양중이시던 교장선생님께서도 학교에 나오셨다。아이들이 우리의 애국가를 부를 땐 감격의 눈물까지 글썽거리신다。

『이만하면 훌륭하군요。그렇지 않아요?』『그래요, 훌륭해요』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은 이런 말을 주고 받는다。정말 훌륭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이렇게 자화자찬 (?) 으로 결론짓게 되나보다。그런데 마음 밑바닥에 있는 쓸쓸함,이것은 왜일까?

한국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부터 나는 이나라에서 한국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됐다。교장선생님도,교감선생님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다。교사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힘껏 목청을 돋구며 내나라 아이들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치겠다고 극성 (?) 피우는 분들이다。

『토요일은 한국학교에 나와야되기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그런데다 학교재정문제니,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걱정해야하는 형편이니 마음까지 무거워져요。다음학기엔 그만둘까봐』한글과 무용을 함께 가르치느라 딴선생님들 보다 더 뛰어야하는 무용선생님 말이었다。그러나 며칠후,그녀는『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계속 할래요』하며활짝 웃었다。나는 마음이 놓였다。이사도, 교장도,교감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할 노릇이지요。우리 아이들한테 내나라 말과 역사를 가르친다는 보람때문이 아니예요?』여름학교동안 프로그램속엔 수영도 있었는데 수영갔다온 아이들이 배가고플테니그때 주겠다고 감추어둔 쿠키를 큰녀석들이 몰래 몽땅 먹어버린 사건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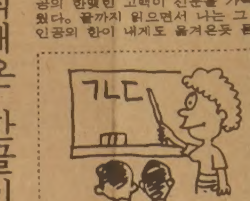
그때 태권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약 10분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었는데 한 여선생님은 마치 자기 자식들이 기압이라도 받는 양 발을 동동 구르며『가엾어 가엾어』를연발해대는 것이었다。핏줄의 진한 정을 여기서 느낀다。내나라 내땅에서였다면 이토록까지 짙은 동족의 정이 우러 나왔을까?

어제는 「조선어학회」사건의 주인공의 한맺힌 고백이 신문을 가득메웠다。끝까지 읽으면서 나는 그 주인공의 한이 내게도 옮겨온듯 몸을 떨었다。하지만 곰곰 생각해본다。

그토록 쓰기 원했고 고수하기 원했던 내나라 말과 글이 왜 미국땅에서는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집 근처에는 멋있게 지어진 일본학교가 있다。그들은 아이들이 국민학교 4학년만 되면 아이를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 일본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는 것이었다。그 학교 교사들은 일본 문부성에서 파견되고 모든 기재설비도 일본정부의 후원으로 사들이고 자기 나라글, 역사는 물론, 영어를 주조로한 이곳 교육도 아울러 시킨다。

프러싱의 토요일만 여는 일본학교엔 학생수가 3~4백명 쯤 된다고 했다。우리 한국 학교도 처음엔 그들과 함께 같은 미국학교를 빌어썼는데 100명도 못되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도 그러려니와 오후까지 계속하는 저들에 비해 임대료가 무서워 겨우 오전에만 수업을 해야하는 우리는 결국 기가 죽어서 따로 장소를 옮겼다。모국에서도 콩나물교실등 교육에 어려움이 많지만 외국의 2세 교육에도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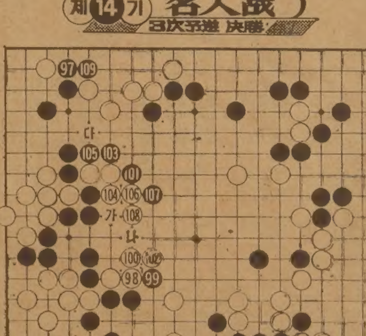


한 정 자
<한국 학교교사·198-25 Pompeii Ave Holliwood N. Y. 11423 U.S.A>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7譜 97~109 (각4시간·덤5집반)

白(初段) 崔 珪 炳
黑(6段) 徐 能 旭



徐6段 연속痛打

黑97로 인해 패배가 확실해진 白은 건곤일척, 또한번 승부수를 던진다。白98로 밀고 모양은 사납지만 白100으로 꼬부려, 좌변黑을 공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黑101의 예리한 맥점을 당하여 다시금 응수가 난처해졌다。실상이 국면에는 여러가지 노림수가 담겨져 있었다。

黑101에대해 白이 직접104에 꼬부리면 黑은 「가」다음 102에 미는수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黑「나」로 붙여, 白102때 黑106에둔다。

그러니까 黑101은 첫째 白104를 유도하고 두가지길중 어느쪽을 택해도 편하게 수습된다는 다목적 묘방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있다。白이 하는수없이 정수대로 102에 꼬부리면 黑103이 통렬한 수단으로 된듯싶어。이젠 白104가 부득이하다。이수로 섣불리 105자리를 째면 黑「다」로 몰아서 축。이 축을 달아나면 102까지와 白4점과 함께 양단수에 걸릴지 모른다。해서 黑105를 허락하고 白108까지 필연의과정을 밟았다。

이동안 사실인즉 白도 그저 당하기만 한것은 아니다。보면 좌변黑전체를 꼭가둬서 부분적으로는 대성공이다。

하나 徐6단이 黑을 거저 죽일리는 없다。대신 상변 白이 黑109로써 빈사상태。

자 白은 어떻게 상변을 타개할 것인가。불가불 또한차례 혼전을 치러야한다。【一凡】

프로복싱

타이틀 挑戰 러시
張正九·崔忠日·金成南이어 金得九도 계획

◇張正九 ◇崔忠日 ◇金成南 ◇金得九

張、사파타와 18일 全州서
"短身의약점 패기로 커버할터"
崔는 리몬과 19일 LA서
"복서로서의 마지막 生命걸고"
東京서 10월10일 金成南·도까시끼戰

가을은 침체 프로복싱계에도 결실의 계절이 될수 있을까。

가네히라 약물파문、泰國가짜복서 사건、필리핀 복서 발라바와 前세계챔피언 金泰植의 린 사고등 깊은 수렁에 빠졌던 국내 프로복싱은 가을을 맞아 세계도전시를 이루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세계도전 선두주자는 張正九(19)와 崔忠日(25)。

張은 18일 하오 全州 실내체육관에서 WBC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일라리오·사파타 (24·파나마)와 타이틀전을 벌이며, 19일 상오11시반 (한국시간)에는 美國 로스앤젤레스올림픽홀에서 崔忠日이 WBC 슈퍼·페더급챔피언 라파엘·리몬 (26·멕시코)에게 도전한다。

아마추어서 34승 2패를 기록하고 80년 프로신인왕전에 데뷔, 우수복서로 뽑힌 張은 프로전적 18전중 9KO의 상승세를 타고있다。스위치복서인張은 인파이팅과 아웃복싱에 모두능하며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하고있다。신장161㎝로 사파타보다 7㎝가 적은것이 약점이나 패기의젊음을 바탕으로 강한승부욕을 보이고있다。공격할때 수비가 허술하고 미스·펀치가 많은게 흠。

張은 사파타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前챔피언 우르주아 (멕시코)와 알폰소·로페스 (멕시코)를 각각판정과 3회KO로 누르는 기록을갖고있다。

사파타는 80년3월 日本의 나까지마·시게오로부터 타이틀을 뺏고 금년 2월 우르주아에게 챔피언벨트를 넘겨주기까지 9차방어전에 성공했으며、다시日本의 도모리로부터 정상을 넘겨 받은 집념의복서다。20승(10KO)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에게 11회KO패、세계도전에 실패했던 崔忠日은 이번 타이틀전에 복서로서 마지막생명을 걸고있다。맷집이 약한게 흠이지만 좌우스트레이트의 파괴력만은 정평이나있다。14승13KO 1패로 KO율 92%를웃돌고있다。

리몬은 프로경력 10년의백전노장。46승(34KO)11패 2무의 전적을 기록하고있다。

WBA 플라이급 1위인 金成南(22)도 10월10일 東京에서 동급 챔피언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21)에게 도전한다。

프로전적 23전 20승(12KO) 3패인 金은 KO율60%의 강한주먹을 갖고있다。체력과 스피드가 떨어지는게 약점이다。

도까시끼는 18전 16승(3KO) 1무1패로 펀치력에서는 金에게 뒤지나 무척빠른복서이다。치고 빠지는 기술이뛰어나며 챔피언이 된후 급성장하고있다。

대전장소가 東京이어서 판정으로 타이틀을 따내기는 어렵다고 판단, KO로 적극 승부를 가릴 계획。도까시끼의 복부에 펀치를 적중시켜 스피드를 죽인뒤 맞받아쳐 캔버스에 뉘다는 기본 전략이다。

라이트급 세계랭커인 金得九도 WBA동급 챔피언 레이·맨시니(미국)에게 오는10월말 미국에서도전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다。【金仁奎기자】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사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광 고 접 수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광고문의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교인학생으로서 주5일 하루3시간씩 집에 와서 762-1572
French, 한국어, 피아노, 미술과목 가르쳐 주실분.
(하루 한과목 지도도 괜찮음) 2194 Bloor St. W.(Runnymede & Bloor)

(Variety & Grocery)
성실한 가게 Helper 구합니다.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Cashier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Queen & Pape. 전화 : 463-6334

오후4시30분부터 7시까지
신문사 공무국에서 Helper로 일하실 남자분.
영구직임. 전화 : 533-2361

웨이트레스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전화 : 656-0456, 654-6609

남자 파타임 가게 헬퍼 구함
(Finch × 웨스톤 근처)
전화 : 741-1465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여권

성명 : 김우경
여권번호 : T.R.W.000768
연락처 : 469-2082 750A Broadview Ave.

하숙

하숙 원합니다. 하루 저녁식사만 해주시면됨.
전화 : 533-0668 Mr. 신(6시이후 전화바람)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자기집 소유한 이혼한 40대 남자로서 결혼에 뜻이 있는 한국여성 구함. 어느 정도의 영어회화 요구됨.
전화 : 292-5430 (Mr. Kumar)

25세 미혼여성. 신체건강하고 착실한 남자분 연락바람(현재 가족들이 Toronto에 거주)
전화 : 431-6474

구직

바쁘신분들을 위하여 저의집에서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4-3700 (Mrs. Le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어린애들(1살반, 3살반)봐 주시고, 약간의 살림도와 주실분.(나이아가라폭포 근처) 가족처럼 지낼것은 물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음. 전화 : 716-634-5839(저녁6시이후 연락 바람.)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함.
(Concord 지역)
전화 : 738-0050 (Mrs. 염)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매매

Restaurant 급매(Full Licensed)
좋은 위치와 좋은 조건(좌석 : 60여석), 좋은 전망이나 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전화 : 536-0715, 368-9018

House for Sale (Private Sale)
완전히 집수리 끝낸 모퉁이에 위치한 집.
위치 : Annex(St.George & Bloor)
크기 : 4 Apt House(Legal fourplex), 아스킹 : $299,000
※집으로부터 연수입 $30,000/Year.
Call. Mr./Mrs. Roman 922-6888

Aurora의 최고지역
새로 수리를 끝낸 2 Bed Room Apt.가 이층에 있으며 일절 새장비로 갖춘 Variety Store.
Call : Mr. Jones 889-8654
W.R.Case Realty Ltd.

Smoke & Gift Shop
for Sale

High Sales Volume &
Best Lottery Ticket Sales place
No Competition &
No Grocery Prime Plaza in Scarborough.

For More Information & Appointment
Call : 751-5176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Variety & Gift Shop.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발전성 있는 위치. 매상 증가 일로에 있음. 리스 : 5년+옵션 3년.주소 : 290 Eglinton Ave. W.

이 기회를 놓치다니요!
Good Mortgage rate에 놀라실겁니다!
Variety Store & Detached Building(Bloor & Shaw)
Good Corner Property, Private Drive Way & Garage
다운페이 : $15,000~$20,000
장래 전망이 대단히 좋읍니다.
Call : Steve Politis now
Premore Real Estate 536-5600

Variety & Grocery Store
주매상 : $5,700. 아스킹 : $57,000+스탁
리스 : 5년+옵션 5년.(10개월전에 Open한 Store로서 앞으로 전망이 크게 기대됨)
2643 Eglinton Ave. E.

"봉학농장"
다음장소에서 9월2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 배달하오니 신선하고 싼 채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 : 2433 Finch Ave. W.
◉오후 7시30분 : 90 Paisley Blvd. W.
(1 Mile North Q. E. W. Missi. Ont.)
◉오후 9시 : 10 Willowridge
(마틴그로브 × 에그린톤)
전화 : 1-775-6256 Mr. 강.

서울집 식당 매매함. 관심 있으신 분 내방바람.
좋은 값으로 양도코저함.
615 Bloor St. W.

Tuck-Shop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2년+5년
연락처 : 272-4568, 270-1371

Store 장비 일절 급매(사용하던것)
오전중 문의바람.
전화 : 221-6544 (Mr. 안)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2층에 방2개 달린 코너 독채가게
주매상 : $3,500
주 소 : 1574 Kingston Rd.

St. Catharines downtown 지역
건물(위층 APT. 살림집) 및 Business 팝니다.
현주매상 : $3,600이상 Good Location
계속 매상 늘고 있는 새로 Set up한 Store
Near G.M.Plant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전화 : 1-685-5863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650/M.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방세 놓음. (College×Brunswick)1 Bed Room
전화 : 923-6236

간이 모텔

방렌트 하실분.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광고문의 ☎ :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불란서 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